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北中駐屯軍演習에 國府抗議를 提出

太原日本官憲의 越權도 指摘

川越大使에 對하야

【南京卅日發同盟】國民政府外交部는 三十日 川越大使에對하야 北中國에서의 日本駐屯軍演習問題에關하야 抗議를 提出하엿고 同時에 太原에서 日本官憲이 輪中公司의 保護에當하야 武裝한 日本人이 中國人家屋을 占有하는것은 용치못할일이라하야 遊擊的抗議를提出하엿다

蘇聯機越境에關한 滿洲國外交部發表

【新京三十日發同盟】二十七日蘇聯機越境事件에 對하야 外交部는 今日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越境機가 滿洲里와 扎賚諾爾間에 잇는 다우리아駐屯軍所屬이것과 該機가 滿洲里地方으로부터 滿洲里를거처 西南小街基街道를 長時間飛行한 事實에 鑑하야 故意로 飛行한것이明瞭하고 錯誤에依한 越境이라는 蘇聯側의 常套的遁辭는이를諒解할 餘地가업다 從來자조企圖하여온 此種惡性越境은 今回의 飛行機不時着으로 움직일수업는 證據를 남겻는데 이것으로 蘇聯이 從來에 國境侵犯云云을聲明하야 世間을 欺瞞한 事實은 恒常不法越境을 敢行하는것으로 判明되엿다 이無誠意한 態度를 指摘하야 外交部는 蘇聯의 猛省을 促하는 同時에 責任者의 處罰及 將來의 保障을 要求하기로되여 哈爾濱에잇서外交部北滿特派員施履本氏로부터蘇聯總領事스라우츠키氏에게 右를 申請하기로 되엿다

「對日戰備는 流言 武器受取는 事實」

韓復榘氏意見發表

【濟南廿九日發同盟】杭州에出席한 山東省主席韓復榘氏는二十九日午後 特히 同盟記者를引見하고 歸省後처음으로左의重要意見을 發表하엿다

余는 終始一貫 日中提携를主張하는者이다 今次 南京에가서이것을 主張하엿는데 今後도 余의 態度에는 變함이업다 中央通信社의 余의 意見은 或은 多數日本人의 感情을 刺戟하엿는지도 알수업다 中國의 一省의 政府主席으로서 戰爭의 讒言을 豫想할때에 그러케 말하지아니할수 업섯다 그러나 余一個人의意見으로는 어데까지든지 日中兩國이 提携하야 共存共榮을圖謀치안흐면안되다 滿洲는 地理的人數的으로 中國人의 心은 國內만칠 가지는아니다 萬若 河北、山東에 日本의武力이 加해진다면 中國은 참을수업서 이러나지 안흘수업다 萬一 日中間에 戰端이 開始되면 兩國이 모다 不幸하고 國際情勢도 惡化할것이다 日本에對하야 軍備를強化하도록 國民政府로부터 命令바덧느냐고 그質問에 對하야는 言明할수업다 余도 中國의 官吏이다 中國을 第一義로하는 立場에잇스나 中央으로부터 對日戰備를 命令바더 여러가지로 工作하고잇다고하는것은 流言이다 그러나 南京에서 武器를 供給바든것만은 事實이다 其他는 風說에지나지못한다

昭和會一部에 벌서解散論擡頭

【東京電話同盟】再燃鐵道疑獄의 發展은 마침내 前鐵相內田信也氏의召喚을보게되엿다 이事實은 昭和會에 衝擊한바 同會는 善後策에 對하야 協議하는 模樣이다 即昭和會는 岡田內閣當時 政友會로부터 入閣한內田 山崎 望月三氏를中心으로 亦是 [illegible] 支配는 內田氏가 掌握하고잇섯다 今年二月總選擧當時 內田氏 [illegible] 昭和會 [illegible]部에는 [illegible] 一致할模樣이다

四相會議開催

豫算閣議以前에

國防費에對해政治的으로折衝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明年度豫算編成의 最難關으로 指目되는 國防豫算의 圓滿解決을 期하기爲하야 豫算閣議前에 首相 寺內陸相 永野海相 馬場藏相間에서 四相會議를 開催할政治的折衝을行하야 事前工作으로 國防과 財政의 調和를 圖하기로되엿는데 大藏事務當局의 意向은 財政狀態에 비추어 國防費의繼續年度延長과 要求費目의 承認으로 難關을 突破하려하는데對하야 陸海軍側에서는 明年度豫算에 要求한 國防費는 現下時局에잇서서 最低限度의것임으로 年度延長에는 絶對反對라고 主張함으로 四相會議에잇서 政治的折衝이 果然豫期의成果를 收得할는지 非常히 疑問視되는바 아마 四相會議에잇서서는 公債發行限度等을 中心으로 軍部大臣과 馬場藏相과의間에서 深刻한 論爭이 展開되리라고 豫想되는바 이러한境遇에는 廣田首相이 如何히하야 四相會議를 收拾할는지 注目의 焦點이되여잇다

消費稅는稅務課方針

稅制整理問題에 關하야 總督府稅務課에서는 最近 左와如한意向을 갓고잇다 卽稅制整理는 第一種所得稅의 源泉課稅引上 第三種所得稅의 累進稅率改正及 國債利子稅以外에는 十二年度에 行치안는다 消費稅는 日本內地에 追隨치안코 萬若 朝鮮으로부터 移出하는것이잇스면 따로 出港稅를 [illegible] 日本內地에서 消費稅를 課하는것으로 [illegible]

産調咨申案에對한 實行具體案大綱決定

總督府各局課長會議에서

産業調査會의 咨申에對한 總督府當局의實行具體案大綱을 決定할 總督府各局課長會議는 三十一日午前中 第三會議室에서 開會되엿다 協議한結果 當面에 具體化할것으로 左의 諸事項을 決定하엿다

一、無水[illegible]의生産
一、化學的纖維原料의生産
一、畜産의振興
一、緬羊牛馬等의飼育奬勵
一、[illegible]
一、水力發電
一、[illegible]
一、沿岸[illegible]의助成
一、沿岸旅客運送計劃
一、海洋[illegible]의擴充
一、淡水漁業의奬勵
一、冷凍魚의奬勵
一、內鮮滿連絡産業[illegible]機關의設置
一、各種試驗機關의連絡協調
一、中小工業의生産品輸出助成
一、金融機關의普及對策

閻錫山氏等南下

洛陽서一大國防會議?

【北平三十一日發同盟】太原綏靖公署主任 閻錫山氏는 綏遠主席 傅作儀氏 前山西主席 徐永昌氏等과함께 三十日午前八時 飛行機로 太原發西安에 向하야 同地에서 張學良氏 前主席邵力子氏와 重要協議를거듭한後 洛陽에 잇는 蔣介石氏와 會見하기爲하야 同夜八時發 隴海線夜行列車로洛陽에向하고 張學良氏、于學忠氏도 今日早朝同地에 參集하기로되엿다 洛陽에는 蔣氏의五十歲祝賀式의 名目으로 河南主席 商震氏 予院氏 河南 安徽 綏靖主任劉峙氏其他 萬耀煌 魯滌平 張爾愚 郭仲隗 齊眞如氏等 諸將領은 이미參集하엿는데 府氏를 中心으로 南北將領을 網羅한 一大國防會議가 開催될模樣이다

情勢推移重視코 各駐屯軍에待機命令

【예루살렘三十日發同盟】이락王國은 軍部가 廿九日 구데타를 敢行하야 폐살王이 首相을 更迭하엿는데 英當局은 情勢의推移를 重視하고 卅日午前 팔레스티나駐屯軍一個大隊 카일駐屯軍一個大隊에 待機命令을 發하엿다

本社參觀

▲林川公立普通學校生徒六十七人 韓相國氏引率下本社見學
▲典興學校生徒十五人 李奉守氏引率下本社見學
▲興東學校生徒六十二人 朴仁順氏引率下本社見學

冀察政權有力者 蕭氏、突然南京行

中央과의 連絡工作?

【北平卅日發同盟】冀察政權內에 隱然한勢力을갓고잇는 蕭振瀛氏는 卅日 飛行機로 北平出發、急遽南京에向하엿다 蕭振瀛氏의 今回의南下는 蔣介石氏의滿五十歲誕生日祝賀를 爲한것이라하나 裏面에는 冀察政權과 南京政府의 連絡에關하야 무슨使命을가진것으로 注目된다

川越、張七次會談 來月初에實現

【南京二十九日發同盟】南京交涉은 二十六日川越、張群兩氏會談後 中國側은 遷延的態度를取하야 次回會談의 日程도 決定지 안허 目前進展은 何等希望이업다 右는 中國側이 先般歸國하야 外務省과協議를遂한 須磨南京總領事의 歸任에依하야 日本側의 態度에變更이잇스리라고 豫想하야 會談을進展식히기를躊躇하고잇다고解釋됨으로 따라서 川越張群兩氏第七次會談은 須磨總領事가 歸任하야 川越大使에게 新訓令이 傳達되기를 기다려 來月初에 擧行될 模樣이다 그리고 其時에는 蔣介石氏도 南京에歸來할豫定이며 國民政府로서 이以上交涉의 遷延을 不許할事情에잇슴으로 來月에열릴 會談이 最後의 斷案에向하야 新展開를示하리라고 期待된다

須磨總領事를마저 上海에서重要會議

【上海三十日發同盟】須磨南京總領事는 三十一日午後零時半 아라시스號로 上海에 到着할豫定인데 上陸하는即時로 大使館附武官 佐藤喜多兩武官의 參集을 求하야 若杉上海總領事等을 參加식혀 會議를開催할 中央의 意向을報告한다음 新訓令에 基하야重要 妥協을 遂하고 同夜十一時汽車로南京에歸任할豫定이다

內相前鐵相遂召喚

再燃한國鐵疑獄事件

【東京電話同盟】再燃國鐵疑獄收賄側의 最高目標로서 일즉이身邊의 危急을傳하던 前鐵道大臣從三位勳一等內田信也氏(五七)는三十一日早朝七時五十五分東京地方檢事局으로부터의 召喚에 應하야 麻布區三河臺町二八의 自邸로부터 任意出頭의 形式으로自家用自動車로 檢事局에 出頭、豫審判事室 階下有安次席檢事의 一室에서 嚴重한 取調를 밧고잇다

同氏가召喚을밧게된 事情은前衆議院議員飛島組社長飛島文吉(六三)昭和會所屬前代議士難波淸人(五七)等의 取調에依하야 昨年九月二十五日 施行의 茨城縣會議員選擧의直前飛島氏로부터 難波氏를 通하야 選擧費用으로同派選出의 某代議士에 五萬圓을 提供한事實이 判明되엿는대 右五萬圓이 果然內田氏에 關係잇느냐 업느냐는點에依한것이다

大疑獄의全貌

【東京電話同盟】마친내 巨頭內田信也氏의 登場으로 全貌가 暴露된 今回의 鐵道疑獄은 東京地方만으로도 直接間接의 關係者八十餘名 起訴六十名以上에達하고 省內關係者中에는 前大臣一名 局長 所長 勅任技師七名을 包含한 國鐵空前의 大疑獄인데 이疑獄에 至한 事件의發端은 實로 昨年十一月七日警視廳搜查二課 土田警部의 손에擒獲된 東京市 芝區會議員高村一心(五二)氏等의 收容으로 判明되엿다 同區高輪小學校建築의 不正事件이엿든 同事件은 前鐵道協會議員等의 建築請負業者 上遠組上遠碊二(五七)等으로부터 請負入札에 對하야 數百圓의 金品을 收受하엿다는 單純한 瀆職이엿다。取調의 進展에 伴하야 府市關係의 多數工事에 同樣의 事實이 잇는것을 探知한 檢察의손은 同年十二月 市土木局庶務課長 黑川一治氏(四八)에게로 버처 同氏의 입으로부터 漏洩된 靑山師範學校 建築不正事件은 府廳務部營繕課長 總島長三郞(五七)同課技師 遠藤昌之助(五三)兩氏의 召喚을 보게되엿고 疑獄은本年二月까지 進展되엿는데 一方이와前後하야 檢擧된數十名의 土木業者의 供述結果를 綜合한 結果 請負業者와 官吏間에거이 恒常的組織的인 關係를맷고잇는 놀라운 怪事實의 全貌가 漸次 暴露되기始作하야 檢擧는本格化하고 司直의 摘發은 東京鐵道局技手 森重夫(三三)等 三名(三月二十七日) 大藏省營繕管財局總務課 囑託大友道(三五)(四月二十一日)와 各方面官廳으로 向하야 뻐치게되엿다 鐵道省上層部最初의 被檢擧者는 當時橫濱市 土木局長으로 잇든 元鐵道省東京改良 事務所長 太田明治(五三)氏 (五月十四日)이다 氏의 罪狀은 在任當時十數回의 鐵道改良工事에關하야 請負業者 戶田組 竹出組 奧村組其他로부터 多額을受贈한 事實인데 이에압서 檢事局과 警視廳當局에서는四月十三日大阪에서 檢擧한 鐵道라임스社長小貫穆世(五三)(永年鐵道省內에潛入하야 人事異動에暗躍하고 賄賂를 仲介하는等 모든惡事를 行하야甘汁을 吸收하든寄生虫)의取調로 前記 請負業者와 省內官吏間에잇서의 犯罪本據인請負業者의 談合倶樂部의 正體를 어김업시 把握하고 加盟請負業者의 供述을 밟아 昭和八年以後 最近에 이르러 鐵道省主要諸工事當事者에 뉘어 工務局長平井喜久松(五三)東京改良事務所長 黑田武定(五〇)兩氏(五月二十八日)가 檢擧되는 一方、東京側과 呼應하야 檢擧에 着手한 京都府警察部의 손에東京鐵道局工務課長古谷賢(五二)(五月二十六日)東京建設事務所長 佐武正一(五二)(六月九日) 前建設局長 池田嘉六(五五)(七月四日)等이繼續 召喚되엿다 內田氏도 危殆하다는 소래가 어려나기는 이前後로 關東에잇서 談合倶樂部 總帥前田繁次郞氏의 收容(六月二十六日)에 뒤이여 鹿島組取締役 湖松茂吉氏(九月十七日)全國土木會總帥飛島組社長飛島氏(九月二十七日)等 土木業者가 背後의 黑幕으로 登場하엿슬때 이미內田氏의 身邊에는 기픈 疑惑의구름이 떠돌게되엿다 內田氏가平井局長等의 境遇와가리 單純한 鐵道省首腦部의 地位에서 談合金의 一部奉納을 强要한等과는 달리 昭和會의政治努力 難波淸人氏와 前田氏의關係、飛島文吉氏와 東京某代議士와의 關係를 獻金强要의手段과 好餌로 使用한 複雜한 關係가 最後에 登場된 難波前代議士(九月二十七日)부터 供述에 依하야 徹底的으로 暴露된것이라고 觀測된다 贈賄者側最後의巨物로 鐵道工業의 間組社長小谷淸氏가 旅行地 宮崎縣下에서 檢擧(十月二十一日)된後 이미取調를 終了한 難波氏 飛島氏贈賄側은 巢鴨市谷刑務所에 收容되엿고 七十餘人의입으로부터나온傍證은 數萬枚의調書로되여 마친내 內田氏도 其中에 連座하게되엿다

有安馬場兩檢事取調

【東京電話同盟】再燃國鐵疑獄으로 일즉召喚되리라고傳하든 元鐵相內田信也氏는 東京刑事地方檢事局의召喚에應하야 三十一日午前七時五十五分 麻布區飯倉町三의 義兄日魯漁業社長堤田四郞氏宅(旣報自宅은虛報)으로부터、昭和會所屬代議士飯村氏等三名과가티 東京刑事地方檢事局에 出頭하야기다리고잇든有村(忠)辯護士의引導로 檢事局橫裁判所構內陪審員宿舍樓上의假調室에 入하야 少憩한後 有安次席 馬場兩檢事의取調를바덧다

이에압서 午前七時二十分有安次席檢事는 大型鞄를 가지고緊張된面持로 臼杵監督書記를 指揮하야 假調室을檢分하는等 어마어마한 光景을 呈하엿다 當事者內田氏는 자못 얼굴에 紅潮를띄우고잇섯다

土木協會로부터 今年二月總選擧를압두고 政友會와 함께바든 昭和會의 獻金十一萬圓과는 別途로 同會結成에 압서昨年九月全國府縣議戰을 압두고 茨城新政倶樂部(內田氏의後援會)에라는 名目으로 飛島에 難波氏의 손을거처 바든問題의 五萬圓에對하야 檢事에게 如何한 辨明을 할는지에 同氏의運命이 달려잇다고觀測된다

叛亂軍空爆開始로 西國首都大混亂

婦女兒童等死傷百餘超過

目不忍見의 凄慘狀

【마드리드三十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首都의 平和的 引渡를期待하고 從來의 空中爆擊을專혀 郊外의 飛行場에 限定하고잇는데 三十九日 末明以來 政府軍이 依然反擊으로轉하엿기때문에 叛軍도優勢한 空軍을動員하야 마드리드市의 空襲을開始하야 特히 叛軍의精銳爆擊機三臺는 三十日午後四時四十分마드리드市上空으로부터 中南部地方에 向하야爆散彈을 十三個投下하엿는바 때마츰晩餐準備次로 堵列하야 牛乳의配給을 기다리고잇든婦女子間에負傷者가續出하야 目不忍見의 慘狀을呈하엿다 마드리드市만에서도 死者三十三名 負傷者兒童十八名 其他約百名을超過하엿다 그리고 헤타페飛行場에도 爆擊을 加하엿기때문에 街上에서 喜戲하든兒童七十餘名은 無慘히 殺戮되엿다고傳한다

蘇聯汽船二隻叛軍空爆을바더

【부르고스三十日發同盟】蘇聯政府는不干涉委員會에서 行動의自由를 留保한다는旨를 宣言한以來 公公然히 西班牙政府軍을援助한다고 傳하는데 叛軍放送局의 發表에依하면 六十五名內外의 蘇聯將校가 카탈로니아人民戰線軍에 參加하야 叛軍攻擊에 活躍한다고한다 그리고右放送에依하면 바르셀로나港에 碇泊中인 蘇聯汽船二隻은二十九日午後 叛軍飛行機二臺로부터 猛烈한 爆擊을 蒙하엿다한다

芬蘭公使館 十一月一日부터開館

【東京電話同盟】外務省은 第六十九議會에서 芬蘭公使館의 新設承認을 어덧슴으로 過般來準備를 進行하고잇든바 十一月一日부터 開館하기로 決定하고三十一日 官報에 이를 正式으로 告示하엿다 그리고 初代公使에는 駐蘇大使館參事官 酒匂秀一氏를 起用하기로 內定되엿는데 同氏는 目下 漁業條約의 改訂交涉에 當하고잇슴으로 目下 헬싱키府에駐在하는 市川書記官으로하여금 同交涉終了까지 代理公使의 事務를 代行케하기로하고 一日付로左와 如히發令할터이다

命芬蘭國駐箚公使館二等書記官 (事務代理) 市川彦太郞

그리고 芬蘭은大正九年一月부터 日本에 公使館을 設置하엿스나 日本은 아직公使를派遣치못하엿섯는데同國은蘇聯에對하야 政治的으로 相當히 重要한地位에잇슬뿐아니라 우랄民族的으로도日本과 密接한關係가 잇슴에 鑑하야 今回正式으로 公使館을設置하기로된것이다

退去한叛亂軍 再次首都에肉薄

【호리츠스=西班牙=三十日發同盟】베라스코將軍麾下의 叛軍의 一隊는 三十日拂曉 마드리드로부터떠나 七十粁되는 地點에 進擊하엿스나 政府軍의 猛烈한 反擊에 遭遇하야 一時退却을不得已하게되엿다 그러나 叛軍은 砲兵隊空軍의 掩護裡에 着着首都로肉薄하고잇는바 마드리드府西南方十粁의 비라비시오사일코에른兩村은 이미白旗를 揭하고 叛軍에 歸順을 表明하게되엿다한다

白皇帝宣言 條約破棄아니다

外相下院에서宣明

【브류셀二十八日發同盟】白耳義外相 파크氏는 二十八日 午後下院에서 白耳義政府의 外交政策을 闡明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一、皇帝레오폴드三世陛下가 去十四日 國務會議席上에서 國防充實의 急務를 說明하엿는데 白耳義政府는 右宣言에依하야 從來의 國際條約을 破棄치안코 로카르노條約 英佛白三國間의 協議를 로카르노撥廢會議의 結果와 함께 依然有效로함

一、白耳義政府는 어데까지 聯盟國으로 集團的 安全保障及相互援助確保를 目的하는 國際的努力에 參加함 그러나白耳義政府는 此等原則에만 依存하야 國防策을 樹立할수는 업다

一、白耳義政府는 구라혀 中立政策을 固執치 안코나 自國領土를 侵略國에 對한 侵略의 基地로 使用되든가 乃至侵略國이白耳義를 通過하는것을 默視할수는업다 自國領土保全을 爲하야 不得已 軍備를擴充하고 國防線을 確保함은 白耳義政府의 當然한 役割이라信한다

佛蘭西의明年度 建艦計畫內容

新建艦數五十一隻

【巴里三十日發同盟】佛國政府는 新興獨逸海軍에對抗하야 佛國海軍의 擴充을 銳意硏究中이든바 今回 두바루海相이 提唱하는 一九三七年建艦計畫을 承認할 陸軍의 充實과 倂行하야 國防强化의 充實에 邁進하기로 決定하엿다 建艦計畫의 內容은 新建艦數五十一隻 總噸數四萬七千噸인데 右建艦計畫의 特色은 驅逐艦及 近海防備用小艦艇의 建造로 全力艦의 建造를 包含치 안엇든데 海軍當局은 目下 建造中의 三萬五千噸二隻 二萬六千五百噸二隻合計 四隻의 主力艦으로 充分하다고한다

産業調査會咨申案 處理委員會

三十一日局課長會議

總督府에서는 卅一日午前十時에第三會議室에 大野政務總監以下各局長이 參集하야 日前에決定한 産業經濟調查會咨申의 處理協議會를 開催하엿는데 此協議會에서는 決定方針中 施設의緩急、委員會를 移設할事項의對策等에 關하야 協議하엿다 又社會課와 社會教育課의 調整等에 對하야도 意見의 交換을하엿다

人事·集會

▲高橋敏氏(新京駐在朝鮮總督府事務官)新任人事次來社 四日發赴任途定
▲林財務局長 卅一日午後十時五分京城驛發渡東
▲穗積殖産局長 卅一日午後三時五分京城驛發渡東
▲李殷相氏(本社出版部主幹)咸鏡線方面出張中 三十一日朝歸社

八面鋒

◇都市는 繁榮해도 細窮民은 늘어간다고。

◇正方形이 長方形으로 變하는것은 物理學上形態의變化라고하려니와、

◇富의集中으로 構成된都市에 貧의分子가 漸增함은 社會學上으로 무엇이라할가。

◇總督府內務局에 社會課가新設되엿스니 爲先 이러한方面에 解答을 하여주소。

◇鐵道疑獄은 마츰내、前鐵道大臣 內田信也氏까지 召喚을 보게되엿다。

◇第二의 小川事件이라고 簡單히 생각할가、岡田內閣의政綱中에는 綱紀肅淸이란 一句가 업섯든가。

新淸酒發賣

丹楓은 지허 黃菊한송 芳香이 그윽한 이가을에 [illegible] 御淸飮하심을 仰祝하옵나이다

却說 今般現時代의要求에應하와日本各市場에好評이嘖嘖하온鈴木梅太郞博士의發明으로된理化學硏究所創製의新淸酒을弊社等二工場에서分讓을엇어 過般來釀造中이든바 來十一月一日을期하와新世界、一新두名稱下에朝鮮의同胞諸賢에게비로소全貌를뵈옵게되엿合니다 아시는바와가티日進月步의現代科學力은드듸여日本淸酒의奧妙한扉를열고一步다시나아가在來淸酒의短處를補足하고長處는改善하야有害物은秋毫도混和하지아니하고味覺亦如甘露의芳香無比한理研新淸酒의出現을보앗合으로 이것이참으로百藥之長이라할만한淸酒입니다 試驗으로 我新淸酒의特徵을 돌자면

一、腐敗치안코
二、頭痛이업스며
三、防腐劑를絶對로使用치안홈

右와如히 衛生的임은 勿論 美味廉價의大衆的淸酒임으로 반드시 諸賢의嗜好에 適合할것을 確信하오니 아모조록 今后는 이新淸酒를 愛顧하여주심을 바라는바임니다

追而種類는 于先은 左記二種으로限하와 賣出하겟合니다

一升甁入、二合甁入

昭和十一年十一月一日

新世界 一新

釀造元 釜山 大鮮釀造株式會社
釀造元 馬山 昭和酒類株式會社
發賣元 三井物産株式會社京城支店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此際 普通科 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 半減함

高等科 三十冊 一冊 六十錢 一年三個月卒業
普通科 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個年卒業 (速修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卽時無代進呈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 他講義錄에比하야 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副業또는本業에

僅少한資本으로收入確實 生活安定되는紙袋製造는 至極簡單하야婦女子도 그날부터就業할수잇고 일은 四季를通하야 絶對不絶 産出品은永久確實히 現金取引되고 萬若 弊店이中途에 作業을中止하는境遇에는 機械를 弊店에서卽時買受할것을 保證함

照會次第 型錄無代進呈

大阪市西區本田通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三九八番

山下テント 釜山大倉町 電話三四四番 カタログ進呈

朝報案內 筆生 [illegible] 京城慶雲町 大學社

民刑事訴訟事務親切酬應

辯護士 法學士 正六位 小松淺五郞

事務所 京城府貞洞町二十七番地 電話長光化門二三三三番 振替京城二二五二九番

月末씨ー비쓰

和洋酒肴 四國料理 鍾路 韓靑食堂 配達迅速 電光二九七二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2)二二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支店 出張所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 水原、廣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 延安、平壤、平壤大和町、素砂

김질藥은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은 一回一個服用

定價 [illegible]

京城本町四 [illegible]

ネオヂリン

鑛山勞働者保護의 勞役扶助規則制定

法規內容은日本內地에準據 朝鮮特殊性도考慮

총독부 광산과(鑛山課)에서는 광부의 보호를 목적으로 소화팔년에 조선광업경찰규측을 개정하야 부조구휼에 힘쓰고잇는데 최근에 광산의 변재가자주나서 리재자의 부조구휼을 필요하게되는 수효가 만하지므로 다시 철저한 광부보호방책을 세우고 방금 광부로역부조규측(鑛夫勞役扶助規則)의 제정을 급히하고잇다 그규측의 내용은 대체로 일본내지에본바더 조선에서는 (일) 보통학교의 교과를 마치지안흔 (이) 청년시간 (삼) 혹험 (사) 부조구휼에 특수한내용을 집어너키로하고 이것을 시행하는데에는 (일) 한번적으로 적용을 회피하려는것을 방지할일 (이) 될수잇는대로 자주립겸하야 시설의 려행을 도모할것등을 목표로하엿다

屍體를解剖한結果 毆打致死로判明

遺族은咸北知事를거러告訴 朴鳳旭變死事件續報

【淸津支局發】 귀보ㅣ지난 이 의변사사건은 사건이중대한것만큼 판계당국자도신실색하고 일체를 비밀에부치고잇섯든바 드듸여 죽은원인이 판명되게되엿다 회령으로가고잇는 간도통춘(間島)(上三峰)경과주재소원에게 거동이수상스러운사람으로보이어 붓잡혀서 주재소에서취조를밧고잇다가 변사하엿는데 가해자들은 회령경찰서에 구속하여두고 방금 엄중취조중이다 피해자의가족은지체를바로 운반하여다가 가매장을하고 선후책을 강구하려하는중이므로 사건의 진전은 매우 주목된다 사건의경과를 드르면 대개다음과갓다

삼십일에 피해자의가족은 삼십일에 청진검사국에 함북지사를 거려서 고소를제기하는 일방으로경무국장(警務局長) 법무국장(法務局長) 청진검사정(檢事正) 함북경찰부장에게 탄원서비범을 보내엿다 한동에의업는 동행인에게 그와가튼 봉상사를 입힌데대하야 그억울한사정을 호소한것이라한다

그뒤 회령검사분국 패원(員原) 검사는 상삼봉공의(公醫)김집상진(金相鎭)씨를 데리고가서검시하고 회령도립의원장을 시켜서 해부도해보앗는데 모다그시체에외상(外傷)한 흔적이현저한것을 인정하엿다한다 청진으로 운반하기에는 상처일에「아쿨」에 저러서잇시 가매장을하여두엇다 피해자의가족은 삼십일에

사망한 사람은 거룩한성으로 보이게되엇은 현금이천여원을가지고 잇섯기때문에 밀수출이편 계자로 인정되여 심한문초를바든듯한데 청진이나 룡정초에하등 신분조사도 해보지 안코서 마침내 죽기까지에 이르게한모양이다

橫死한父親爲하야 最後까지싸우겟소

◇......長子朴明涉氏談

피해자의 장남 박명섭(朴明涉)씨는 다음과가티 이야기하엿다

자식으로서 세상에 나왓다고 나갈수도 업습니다 불효한죽엄을 이룬 아버지를 생각한즉 나의 할일은 어데까지든지 아버지의 죽은원인을 밝키고저합니다 그때문에 시체를 청진으로 운반하야 가매장을하고 온전히 당국의 처치여하를 기다리고 잇습니다

오늘(삼십일일)은 함북도경찰부로부터 삼륜(三輪)고등경찰과장이 조문하러와서 다시금 감개무량합니다 다만 하등의 의업는부친이 이국히불명예스러운협의로 최후를 지은데대하야 자식으로서는 어데까지든지 사회의 오해를 풀고저고 소까지 하게되엿습니다 어떤 일이잇든 죽은부친이 다시살아올 리가야 잇겟습니까만은 ......운운

낫부터侵入 밤들기를苦待

發覺逮捕된窃盜

북적을 충청북도괴산군(槐山郡)에두고 일정한주소가 업는 김억년(金億年)(二)은 구월이래 종로(鐘路)아현정(阿峴町)내자정(內資町)등수처에서 금시계 삼천여원어치를닥치는대로훔쳐가지고 주색에 탕비하고잇든중 삼십일오후여덟시경에 이번에는 부내 로고산정(老姑山町)이백사십이번지 송고산(宋古山)의 집에 잠입하야 밤이들기를 기다리든중 근처사람에게 발견되여 서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엿다

樂園町에棄兒

시내 락원정(樂園町)이백 팔십삼번지의 십오호 리긔성(李基性)씨의 대문간에 삼십일오후아홉시경에 나흔지 약칠개월되는 녀아를 누가버리고간것을 그집 주인이바다 종로서에서는 방금 그버리고간범인을 수사중이다

小兒와노름한者

시내종로(鍾路)육정목일백팔십구번지 정길환(鄭吉桓)(二〇)은지난삼십일오후 장곡천정(長谷川町)이삼일번지압길에서 어린아이들을다리고 일전짜리도박을하다가 본정서원에게 피검되엿다

至毒한魅力!

늙어도못끗는阿片 孝悌町의魔窟을一網打盡

시내효제정(孝悌町)백구십사번지 김원대(金源大)(六七)의집에는 아편마들이모혀 매일가티마약의 도취경(陶醉境)에잠겨잇다는 것을 탐문한 소관동대문서원 이 삼십일 오후세시경에 그집 으로가보니 전긔주인외 세명의 인들이모혀 아편침을 맛고잇는 것을보고 체포하라고하자 그들은줄을바그로 뛰여나가 도망하엿다 곳뒤를따라 무난히체포하야 본서에류치하고 엄중취조중인데 전긔김은 열여덟살되든때부터 아편의포로가 되여 이때까지계속하야 오는동안에 여러번이나 형무소를 드나든자인데 매월동지들을 자긔집에다 모혀노코는그 마력에 정복되여온것이라고 하며 취조경관에게 죽을지경이니 제발 약을노하달라고 애걸하는 꼴은 보는사람으로하야금 가련하고도 가증한생각을 품게하고잇다

三百圓물게된 處女蹂躪痴漢

꼿송이가튼 피어올르는처녀의 정조를유린한협의로 위자료삼백원을물라는판결을밧고서 그것도 못내겟다고 고등법원에상고하엿다가 마침내패소된사건이잇다 충북괴산군청안면(槐山郡)리에사는 현병옥(玄炳玉)은 소화구년팔월경에 그동리 윤후영(尹厚榮)의 집에 놀러와잇든 봉생리민인직(閔仁稙)이라는 열다섯살먹은녀자가 우물로물기르러간 것을 쾌여다가 동네집에가두고 정조를유린하야 마침내시집도못 살게한사건으로 처녀민인직의친권자 리씨(李氏)로부터 위자료천원을 내라는소송을 당하야일심에서는 승소하엿스나 이심에서패소하야 그만 위자료삼백원을 주라는 판결을바덧다 그가세기어려워서 삼백원을 내면 파산할지경이니 위자료를 낼수 업고 또 낼수업는것을 주라는 판결에는 복종할수업다고 고등법원에 불복상고중이든바 삼십일일 위자료의금액을 정한것은재판장의 심정여하에 따를것이지 피고의 재산정도에 넘첫다하야 하등법률해석을 잘못한것이 아니라는 리유로 고등법원에서피고의 상고를긔각한다는 최후판결을내리여 피고인 현병옥은드듸여 위자료삼백원을내게되엿다

瓦家一棟을燒失

졋데울불피다가 ◇......損害는約千圓 卅一日새벽, 明治町에火災

삼십일일 오전세시이십분경 시내명치정(明治町) 일정목천주교당(天主敎堂)에서 고용사리하는 박준형(朴準亨)이가 어린아이 졋을 따뜻이하기위하야 티검불을 모아서 불을피우다가 그만 잘 못되야 그가살고잇는 기와집한 채를 전소하고 가튼 사십오분 에 진화하엿다 손해는약일천원 가량이다

嚴冬압두고 土兵跋扈 一夜兩處를掩襲

食糧衣類强奪 同胞卅五名拉去 咸南對岸依然不安

【咸興】 어제구일오전한시경 함남도대안 십팔도구두도구(十八道溝頭道溝)에는 약사십여명의 계통이 불명한 공산군이 나타나서 동지동포가옥오집이호를습격하야 대맥삼석이두 우마십두 그밖에 식량품을 모조리빼앗고동포삼십이명을 붓잡어가지고 동남대사에도 십구도구(十九道溝)방면으로다라낫다

×

이십팔일오후여덟시 십팔도구신덕리(十八道溝新德里)이주동포 촌락에 김일성(金日成)의일대열다섯명이와서 강태교(姜泰敎)등을 잇는대로 습격하야 식량 의류를 빼아슨후에 서경윤(徐京允)등 세사람을 붓잡어 가지고갓다

이러케하로밤동안에 두곳에서 륙십여호의 가정과 삼십오명의 다수를 랍거(拉去)하기는 보긔 드문 피해로서 결빙기를 압두고 이주동포들의 공포는 그절정에달하고잇다

萬德山기슭에 千餘群衆雲集

南北各地名士의祝電도遝至 眞興王碑閣落成式盛況

【咸興】 신라진흥왕 북순비각락성식(新羅眞興王北巡碑閣落成式)은 긔보한대로 예정한시일 이십구일 오전십일시에 함남리원군만덕산(利原郡萬德山)에서 성대하게 열리엿다 이복선비는 창녕 북한산 황초령등지에잇는 새비석과 아울러 신라 최고한 비석인만큼 력사상에중요한것은 다시말할것이업고 이것을 영원히 보전하기위하야여러해동안을 노력하여오든 당일의 락성식은의미기픈일이엇다 리원군일대는 물론이요 함흥 북청등 함경도내의 인사와 멀리 경성 정주에서까지 래빈이 참례하야 만덕산 기슭에는 천여명의 희유한진경이 열리엇다 리원 고적보존회 회장으로부터 개회가 선언되자 정숙한속도로 선왕의 크신업적을 감격속에서 헤아릴수잇섯고 제단에 떠오르는 향연과함께 여러가지 순서가 거행되엿스며 오백식장을드린 공사보고가잇슨후 진흥왕비석 발견의유래를 자세히 설명하고 봉사축문 간 리은상(李殷相)씨의 봉자장 축사대독과 당지군수와 여러귀빈축자들의 의미기픈 축사와조 마지(曹晩植)씨의 축문(祝文一节)씨의 수십명의 축전에는 사천이떠나 갈듯한 박수소리가 울리어낫다 이날하로의 만덕산은 청명한날씨라 천여명 래빈의 즐거움은 말할수업섯고 이어복흥사(福興寺) 너른마당에서 축하의 연회가 배설되엇스며 유물고적에 대한문화의 이야기속에서 하로해를보내고 마친뒤에 동일오후다섯시경에 산회하엿다 (사진은당일식장광경)

自動車에치어 右脚이切斷

飮食店雇傭人의橫厄

삼십일밤아홉시오분경되여 시내룡두정(龍頭町)이백이십삼번지 압길에서 루상정(樓上町)이삼번지 음식점고용인 김순칠(金順七)(二三)은 제긔정(祭基町)일백 사십오번지 리성근(李聖根)(二七)이가운전하는 경(京)구천삼백이 호자동차에치어 오른편다리가부러저서 전치약이개월을요할 중상을입엇다

中央線工事의一部 來月六日에入札

各二百萬圓의大工事

철도국의 중앙선(中央線)제십사공사구역인 치악(雉岳)터널 삼포인트 칠십오킬로제삼공사구역 ㅡ 북한강(北漢江)을 포함 ㅡ 두구역은 마침내 착수하기로 결정되엿는데 제십사공구는 서본조(西本組) 서송조(西松組) 대림조(大林組) 간조(間組)를 각각지명하여 십일월륙일 입찰을 시키기로되엿다 공사비는 두구역이각각 이백만원식으로 이로써청량정(淸涼町)을 긔점으로 경북영천(永川)까지에 이르는오백키로에 가까운 대철도부설은 마침내 그실현을 보기로되엿다

天氣予報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西風이불고 개일러이며 치워진다 明日도가트며 京畿道全圓 갓다

昨日最高	一五度九
同 最低	五度八
今朝最低	七度五
今日正午	一一度一

昭和十六年末까지 治山治水를完成

治水委員會의具體案

이삼구 삼십일오후동안 총독부 치수조사위원회(治水調査委員會)에서 조선의 치산치수근본대책을 토의한결과 대개다음과가튼 구체안을 엇게되엿다 즉치수대책으로서는 현재실시계획중인 오천칠백만원을 던저서 개축후 은수축하고잇는 즉할하천에 대하야 다시 이천삼백만원을 추가하며 계획년도수도 오개년을 단축하야 십이년도부터 실시하는외에 사개년계속으로 약삼천만원을 내어 지방의 중소하천을 조사수축키로 되엿는데 이에대하야 금년도부터 명년도까지에 걸처 위선긔본조사를 할예정으로 본격적수축은 십삼년도이후가 될모양이다

그리고 치산대책으로서는 제이긔사방계획(砂防計劃)을 세워 십이년도부터 실행에 착수하야 소화십륙년말까지에는 치산치수의 전면적완성을 긔하려는것이다

南江의廻流工事 明年度부터實施

中小河川調査도並行

삼십일까지 끗마친 치수조사위원회에서 새방책으로 결정한것은 一, 중소하천개수법치계획을세워 전부조사를 한다 중소하천의 상류부분에 치수공사를할것 二, 사방계획을량거서 실시할것 三, 상당한보조를 주어 민영사방공사를 실시할것 四, 하천범람지역에 거주를제한할것 등네점이다 그리고 중소하천조사와맛추어 동강개수공사중 남강(南江)물을 돌리는것은 급부중에도 급부로서 명년도 추가예산에 계상할예정으로 남강물돌리는계획은 경남진주(晋州)상류와 일리되는지점에서 방수로(放水路)를뚤러서 연장약이리를 거처서 서진만(鎭海灣)에 입우기로하는것인데 이때문에 서진만의 해태생산에도 상당한 타격이 아올터임으로 그보상(補償)문제도 연구키로되엿다

◇綜合競技蹴球大會光景 (今日京城運動場에서)

技倆을超越하야 熱과意氣의爭霸

遠來의明新·永生軍第一戰에快勝 全朝鮮蹴球大會開戰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주최종합경기의꼿이오 우라스포ㅣ츠계를 좌우하야 가장성의를 국한전조선 축구선수권대회(全朝鮮蹴球選手權大會) 제일일은 삼십일일 오전열한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리엇다 위자의을 기행하기전에 먼저 중학부 제일회전인 전주 신흥학교 (全州新興學校)대 재령명신학교 (載寧明新學校)전과 함흥영생고보(永生高普)대 보성고보 (普成高普)전을 행한바 그전적은 다음과가트며 유구사형변의 려사를 가진 동대회는 일홈으로 사일동안 기량(技倆)을 초월(超越)한 열(熱)과 의기(意氣)의 정전을전개할것으로 만도축구편의 시청은 이에쏠리고잇다

中學部第一回戰

明新8 新興1

【前2…1 後6…0】

【第一次】全州新興學校對載寧明新學校戰은 同十一時五分부터 李

【新興】 朴三同 金昌洙 李允求 姜斗煥 李相鎬 李完鎬 金容奎 李泰俊 金元珠 洪聖德 GBLRCLRRCLL KFFHHHWIFIW 【明新】 姜鳳燦 吳景煥 高德華 韓鳳信 崔誠毅 崔承植 文哲浩 朴貞三 朴明瀾 李錫浩

	前	後	計
【明新】得點	2	6	8
門蹴	1	5	6
角蹴	1	3	4
自由	7	3	10

	前	後	計
【新興】得點	1	0	1
門蹴	7	4	11
角蹴	1	1	2
自由	13	6	19

되바 明新軍驚足을利하야 新興陣營을 始終肉薄하드니 結局八對一의 大差로 明新軍快勝하야 第二回戰에서 徽文高普와 對戰케되얏다

永生1 普成1 (延長七十分間)

【前1…0 後1…0 延0…0】

【第二次戰】咸興永生高普對普成高普戰은 同日午後零時半부터 片茂英(主)金有亮、金龍圭(線)三氏 審判아래 永生軍先蹴으로 開始한바 前半戰에잇서 兩軍接戰激烈하드니 十分에 普成LI金東式君이 RI徐明煥君의패스를바더 食하야 普成軍機先을制하야 一點을엇고 二十分과 二十六分에 永生軍善戰하야 好機를마젓스나 凡蹴으로無爲되여 一對零으로 前半戰을마치다 後半戰에드러가 永生軍의 銳意的攻擊으로 普成軍陣前에서 混戰을 繼續하드니 타임업七分을남기고 永生RI李魂煥君의 妙蹴으로 一點을挽回하야 一對一同點되여 所定의七十分間에 無勝負되니 마츰내延長戰에 드러가 兩軍接戰五레 無得點으로抽籤에 依한바 遠來永生軍이 幸運의 籤을얻어 第二回戰에서 第二高普軍과對戰케 되엿다

【永生】 朴河 李東 金昌 李魂煥 金英 金吉 全丙 安 金 朴 GRLRCLRRCLL KFFHHHWIFIW 【普成】 李 李 金 尹 張 朴 徐明煥 金東式 柳 金 朴

	前	後	延	計
【永生】得點	0	1	0	1
門蹴	9	1	3	13
角蹴	1	2	0	3
自由	1	3	2	6

	前	後	延	計
【普成】得點	1	0	0	1
門蹴	2	1	0	3
角蹴	4	2	1	7
自由	3	1	0	4

早慶野球戰 早大軍先勝

傳統을자랑하는 第五十一回 早慶野球戰은 早大廿六勝、慶應廿三勝、一無勝負의뒤를이어 今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東京神宮球場에서 慶應先攻으로 開戰한바 結局六A對二로 早大軍先勝하얏다

◇投捕=(早大)若原—佐武 (慶應)高木、中田、高塚—櫻井

慶應	000000200
早大	000300003A

6A…2

레스링代表一行歸國

【神戶電話同盟】今夏伯林올림픽大會에 出場하엿다가 歐羅巴、米國、中國을 歷訪하고 豫想以上의好成績을거두운「레스링」代表「메타」級水谷選手外四名은 監督山本氏引率下에 三十日午前九時神戶入港의 郵船歐洲航路箱崎丸으로 凱旋하엿다

運動界人事

▲奉天蹴球團一行은 監督 鄭在錦氏 引率아래 卅一日朝入京 武橋町八五番地 松屋旅館에 投宿

▲全州新興學校蹴球團一行十三名은 全朝鮮綜合競技蹴球大會出戰次 監督崔桂男氏引率下에三十日朝入京 淸進町韓昌旅館에 投宿

태평레코-드
사공의노래 / 지나간七百年 流行歌 崔南鏞 盧碧花 朴山紅
女天下(上下) 스켓치 金蓮實 金永煥
사랑의天國 / 千里遠程 流行歌 崔南鏞 盧碧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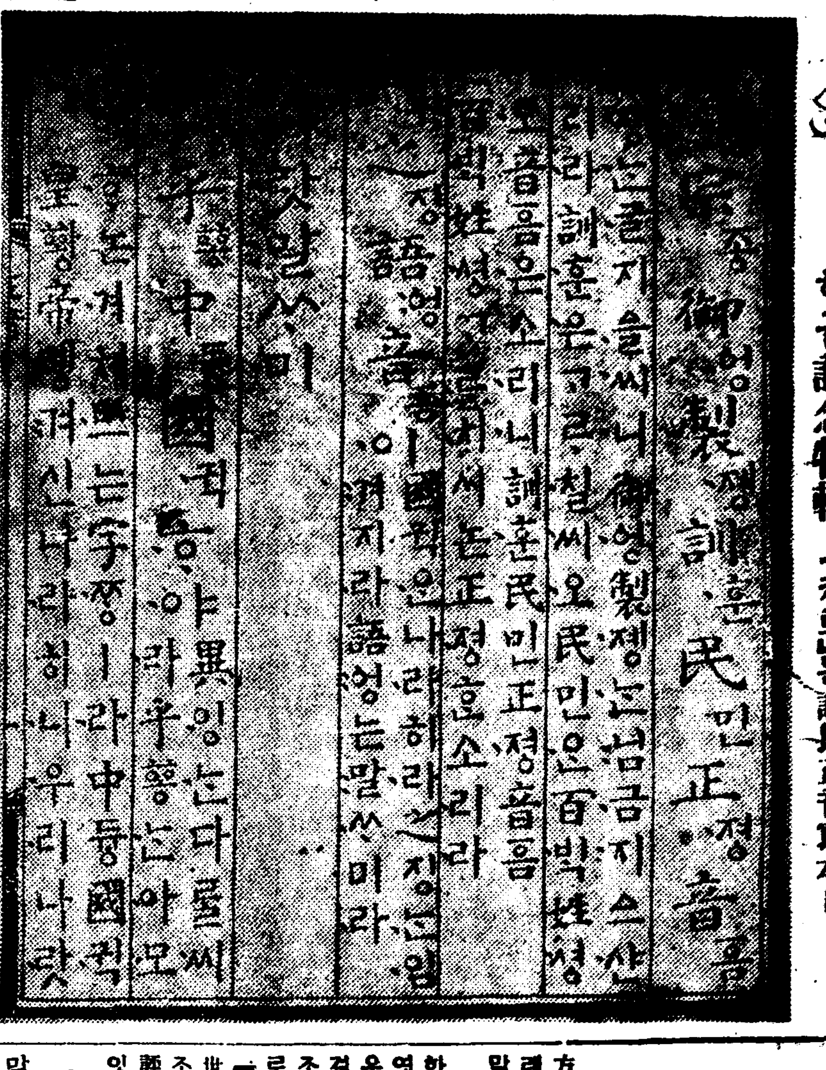
登錄商標 世界 SK 世界運動靴
登錄商標 銀河水 銀河水고무신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京城府麻浦町三三七番地 長電話光化門③一七八〇番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眼學生 京城驛前 本局五一二二
◎急告 世富蘭偲의商號를使用하야 奸利를取하는 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位는注意하시옵소서

九龍虫 神效! 支那宮中秘藥 不老長壽! 強壯強精!
藥始王以來三千年間 支那宮中에서服用하든바 滿洲國國務總理로부터 九龍虫에紹介되엿다 九龍虫의效能은如左하다 肺病、肋膜炎、心臟病、神經痛、胃腸病、脚氣、眼病、老衰症、婦人病、一切陽之解毒 每首一錢 以上飼料同封 死傷方全注
三生醫院 京城黃金町一丁目

天一靈神丸
가을! 가을이왓슴니다 換節期에는飮食을注意하십시요 食滯하야주십시요 不意에생기는吐瀉病에는 常備藥으로 天一靈神丸을 豫防하실수잇슴니다
效能 ▲食滯 ▲吐瀉霍亂 ▲暑滯 ▲消化不良 ▲酒滯 ▲胸痛 ▲氣鬱逆上 ▲頭痛 ▲腹痛 ▲腹部膨脹
藥價 十錠 二十錠 五〇錢 一圓
全國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京城禮智町 本舖 天一藥房

한글記念特輯─「커드는」訓民正音寫本─



한글이 創製되지 今年이 四百九十週年이라 그동안 幾多한 盛衰의 經路를지낫스나 近來에와서는 여러方面으로부터 한글에對한 關心이커가고 또한 語文에關한 研究가 기뻐자는것은 반가운일이다。 더구나 금번에는 標準語까지 查定이完成되여서 지난二十八日 午後五時부터 市內天香園에서 한글記念式과함께 이發表式이잇섯슴으로 이에特輯을 만드는것이다 (一記者)

한글記念四百九十週年 標準語發表에際하야

李克魯

一、朝鮮語 辭典 編纂의 한 基礎工作으로된 朝鮮語 綴字法統一案은 三年前에 이미 頒布되엇고 또 그基礎工作의 하나로查定한 朝鮮語 標準語는 이번한글날에 頒布하게 되엇다。綴字法統一案 完成도 三個年의 歲月이 들엇거니와 이번 標準語查定도 또한 三年이란 歲月이 허비되엇다。그래서、前後 六年 동안은 辭典編纂의 基礎工作에 힘을 쓴것이다。

우리는 四千餘年의 歷史를가지고 이言語生活을 하여 온다。그러나、이제까지 아무 整理와 統一이 업는 方言을 써왓슬뿐이다。이러한 言語生活은 오늘 世上에는 到底히 허락하지 아니한다。現代 文明은 모든 것이 다 標準化한다。鐵道軌道의 幅은 世界的으로 共通化하엿스며 적은못으로븟터 큰 機械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이나 大小의 號數가 잇서 國際的으로 共通된 標準이 업는 것이 업다。무엇이나 共同生活에는 共通的 標準이 잇서야 될것은 두말할必要가 업거니와 더욱이 한 民族社會 안에서 생각을 서로 通하는 言語에 잇서야 統一된 標準이 업지 못할것은 환한 일이다。그러므로 各民族은 제 각각 標準語 統一에 努力하엿고 또 努力하고 잇다。대저 方言이 構成되는 原因은 여러 가지가 잇다고 하겟스나 人文 및 地理上의 障害가 가장 重大한 作用을 하는것이다。그러나 近代의交通發達과 文化學術의 交換이 盛行됨과 또 出版文化의 發達에 따라 標準語制定運動이 盛行하게 되엇다。

어떤 文明族에라도 標準語와 方言이同時에 倂行한다。標準語는 가장 勢力잇는 方言을 擇하야 文字化한것이오 方言은 大概口語로 되것이다。

二、民族語의 標準語를 查定함은 그 使命이 무거운 것이다。그러므로 이使命을 다하기 爲하야는 合理한 組織과 愼重한 態度가 업스면 아니 될것이다。朝鮮語學會綴字法統一案總論에 「標準語는 大體로 現在 中流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하엿다。이精神에 依하야 標準語查定委員은 各文化事業機關에서 從事하고、또 言語方面에 趣味를가진사람으로 京城에나 近畿에서 生長한 분을 全委員數 七十三人의 過半數로 뽑고、그 밧게 約半數는 各道에 人口比例를 따라 配分하야 뽑앗다。그래서 中央委員으로 查定하지 못하는 말은 地方委員이 協力하야 地方말을 參考하야 查定하게 되엇다。

이 標準語查定委員會는 昨年一月에 溫陽溫泉場에서 第一讀會가 열리엇고、昨年 八月에 牛耳洞에서 第二讀會가 열리엇고 今年 七月에 仁川에서 第三讀會가 열리엇다。그리고 매양 大會에서는 修整委員을 뽑아서 修整의 責任을 지우엇다。이 修整委員은 大會의 委託에 依하야 修整委員會를 달과 날을 이어 열고 그 案을 修整하야 비로소 完成하는 대에 이르럿다。

이 查定된 標準語集은 大體로 二部에分하엿는데 第一部는 全等語이니 이것은 뜻이 꼭갓고 말이 다른것이오、第二部는 類似語이니 얼른 보면가튼말로 보이나 자세히 그뜻을 살펴 보면 거의 가튼 뜻을 가지고 쓰히다가도 마즈막에 어느한點이라도 다르다。그래서 各立語가 된다。一讀會와 二讀會까지 全等語로 오던 말이 第三讀會에와서 各立語로 넘어간것이 적지아니하다。全等語로서 十餘個의 말까지 잇는 것이잇다。그가운데에서 여러사람의 뜻을 一致시켜 標準語하나를 가리어 내기는매우 힘드는 일이엇다。

三、查定된 標準語彙는 學的研究를 爲하야 前編은 討議查定한 方法대로 體系的으로 編纂하엿다。그러나 이제 讀解하야 나올 後編은 그 語彙를 다시 가나다順으로 編纂한 뒤에 前編과 合本하야 一般에게 索引의 便宜를 돕고저한다。

이 標準語가 頒布되기 까지 이른것은 오로지 敎育界 特히 言論界 其他 各方面 有志人士의 끈임업는 援助와 激勵로 말미암은것은 틀림업는 事實이다。이러하게 힘써 이루어진 標準語를 이제 社會에 頒布하게되엇스니 이 말과 이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나 協力하야 實用에 熱을 내어준다면 感謝함을 마지아니할 일이다。

各方言과標準語 ─다시서울말과方言─

李熙昇

나는 여기서 標準語의 定義나 標準語가 되기에 不可缺할 條件을 論述하려 하지안코 다만 標準語와 京城語의 關係에 對하야 簡單히 말하려한다。

標準語를 云云할 때에는 그 對立되는 말 即 方言을 豫想하게 되나니 世間에서 흔히 方言이라함은 京城以外의 어느다른 地方이나 또는 그地方말 中에서 特히 다른 地方에 使用되지안는 特殊한 말에 限하야 方言이라는 稱呼를 適用하는 傾向이 잇스나 이는 잘못이라 생각한다。

言語學上에서 方言이라함은 어떠한 地方을 勿論하고 그 地方에 現行되는 言語現象의 全體를 가르처 方言이라 부른다。어떠한 特殊한 地方의 言語나 또는 特殊한 語彙나에 限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京城語도 한 方言이 될것은 勿論이다。

이러케 생각하고 보면 標準語는 決코 方言과 서로 對立되는것이 아니오 모든 方言以上에 抽象되는 言語 即 한言語團體의 規範이 되는 말을 이르는 것이니 마치「論理學上」의「概念」이라는 言語다。即「사람」이라는 名稱은 「甲」이라 「乙」이라 「丙」이라……하는 어느 具體的 特殊한 「사람」을 이르는 名稱이 아닌同時에 「甲」도 「乙」도 「丙」도……이 「사람」이라는 名稱에 包含되며 「冊床」이라는 槪念은 「이冊床」 「저冊床」等 어느 特殊한 具體的 冊床을 指稱하는 것이 아닌 同時에 「이冊床」이나 「저冊床」이나 어떠한種類의 「冊床」이나를 全部包括하는 名稱이 되는것과 마찬가지다。即 標準朝鮮語라는 말의 內容도 어느 具體的地方語、例하면 具體的京城語를 이르는 말이아니면서 同時에 各地方語와 京城語를 包括하는 抽象語에 對하야 부치는 名稱이 될것이다。

實例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번에 朝鮮語標準語 查定會에서 數年동안을 두고 查定하여온標準語의 語彙도 「대체로 現在中流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基準을 삼엇스나 그 查定한 標準語彙의 全部가 京城語도 아닌 同時에 京城語의 全部가 또한 標準語가 되지 못한것이다 다시 實例를 들어보면 京城말에서

「돈」을 「둔」으로
「공」을 「궁」으로
「몰라」를 「물라」로
「좋다」를 「촤다」로

發音하는 顯著한 特徵이 잇스나 이 「둔」「궁」「물라」「촤다」等으로 標準語를 삼을수는 업다。이는 그말들이 지니고 잇는 品位나 語感이 高尙치 못한 까닭이다。이 品位나 語感의 問題를 떠나서도 너머 京城이라는 좁은 版局에 限定되여 使用되는 語彙도 標準語 될 資格을 認定키 어려운 말이 잇스니 서울말에서

「초」(醋)를 「단것」으로
「푸주」(庖廚)를 「관」으로

使用하는것은 그 分布區域이 너머도 京城이라는 좁을범위에限定되야 近畿 其他地方에서 全然 理解할수 업슬뿐아니라 그와同一한 意味를 가진말로 그 分布區域이 全朝鮮的이오 使用勢力이 强大한말이 따로 잇는 까닭으로 「초」나 「푸주」가 標準語되기에 이른것이다。

그러나、이번에 查定된標準語가 標準語構成의 理論 乃至다른言語團體의 標準語制定實例에 依하야 그 語彙의 絕對多數를 京城語中에서 採擇한것은 말할것도 업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查定은 語彙에限한것이나이外에도 語法의 標準 發音의 標準 액센트(高低)及 인토네이숀(抑揚)의標準等도 當然이 云爲되여야 할것이나 이는 다음機會로 미루고 이만 말을 맺는다

한글記念式光景(지난二十八日市內天香園에서)

標準語查定과 朝鮮語의特質(上)

崔鉉培

우리 조선어학회에서 많은 各方面 人士의 協力을 얻어 오래 동안 討議하여 오던 「표준말 찾기」(標準語 查定)가 인제 되어서 四百九十째 돌이라 한글날에 이를 세상에 펴게되엿다。우리는 이번의 이 일이 우리 조선의 文化運動에 조흔 결과가 되며、바른 길이 되어 조흔 열매가 매치기를 축심으로 바라는 바이다。「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이미 世上에 나왓스니、그內容은 온 조선 有識한 사람들의 바른批評과 校正을 입어서、더욱 힘잇고 아름다운 표준말이 되을 맺거니와、이제 내가여기에서 特히 늘어 말하여서 조선사람의 기픈 注意와 깨침과 힘을 을 바라는 바는 이러하다 곳 이「조선어 표준말 모음」으로 말미암아 조선말이 世界言語中에서도 가장 빼어난 特性을 가지고잇다는 것이 分明히 조선사람에게 널리 認識되기를 바라는 일이다。

우리는 조선의 젊은 친구들에게 이러한 말을 듯는다。곳 조선말에는 形容詞가 不足하다고。그리고 이를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는 態度를 보힘을 본다。그러나、이것이 참말로 우리 조선말의 缺陷일까、조선말이 事物을 形容하는말이 다른 나라말에 比하여 不足할가?

이제 조선 청년이 흔히 조선말에 形容詞가 不足하다고하는 理由를 살펴보건대、대개 다음과 가튼 것이잇겟다。

첫째、조선에는 眞正한 朝鮮文學이 發達되지 못하엿기 때문에 조선말이 그저家庭과 巷間의 日常口頭語로만 그치고 아직 偉大한 多數의 天才로 말미암아 精細한 文學的 또 文字的 修鍊을 거치지 못하엿다。그래서조선말이 本然的으로 가지고잇는 微妙한 性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엿다。훌륭한 말노 그 特히글읽는 사람에게 發揮하지 못하엿나。다시 말하면 조선말의 形容詞는 文字에올어 나서 讀者에게 感興─特히 詩的感興을주는 힘이 不足한 形便에잇기 때문에 조선글을 읽고또는 쓰는 사람이 自然히 조선말에 形容詞가 不足하다는 느낌을품게 된다。近來에 조선에도 文學의 氣運이 旺盛하야 만흔새로운 文學者들이 이말에 形式을 주고 뜻과리듬을 아름답게 하고 精彩잇게하고 印象力이 세게 하고 感動力이 豊富하게 하는 途中에잇스니까 이點은 차차 矯正될날이 오겟지마는 아직은 上述한弱點이 作用하고 잇슴만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라 아니할수업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조선어敎育이 不完全한 때문에 靑年이 小學 中學修學時代에 조선의 文學的作品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對한기픈 知識과 사랑과 날카로운感受力과 鑑賞力을 가지지 못한것이다。이는現在의 조선어 모지 文學的作品이 업서서가아니라、오로지 朝鮮語敎育 그것에 不充分한 때문이다。

셋재는 다른 나라말을 조선말로 옴겨보다가 잘 안 될것 가트면 이를 自己의無能、아니그보다도 翻譯─特히 詩文의 翻譯이 特히 어려운 일인줄을 모르고 그저 조선말그것이 不足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速斷하는 때문이다。元來翻譯이란 것은 至難의 일이다。더구나詩의 翻譯은 難中의 難事이다。이는 漢詩나 英詩의 朝鮮譯이어려울뿐 아니라、英詩의 漢譯 漢詩의 英譯도 어려운 일이며 朝鮮詩의 英譯、漢譯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

첫재、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ㄱ)소리의 通用에 關한말

(1) 닿소리(子音)의 通用

●ㄱ과 ㄲ의 通用

【ㄱ을취함】

가스랑이(名)小刺
까스랑이
까스렝이
까치랑이
까치렝이
거꾸러지다(動)顚
꺼꾸러지다
그슬리다(動)燃
끄슬리다
그치다(動)止
끄치다
근치다
끈치다

【ㄲ을취함】

찌긋거리다(動)顰蹙眉
찌끗거리다
찌긋찌긋(副)顰蹙眉貌
찌끗찌끗
까뀌(名)小斧
가뀌
깍지(名)角指
각지
까마귀(名)烏
가마구
까치(名)鵲
가치
꺼불거리다(動)上下搖動
거불거리다
꺼블거리다
꺼적꺼적(副)上下搖動貌
거적거적
꼽치다(動)二折
곱치다
끄덕거리다(動)點頭
그덕거리다
끄덕끄덕(副)點頭貌
그덕그덕
끌러지다(動)自解
글러지다
끌르다(動)解
그르다
끌르다

●ㄱ과 ㄳ의 通用

【ㄱ을취함】

싹(名)芽
싻
색(名)色
샋

【ㄳ을취함】

넋(名)魄
넉
몫(名)配分
목
삯(名)賃
삭

●ㄱ과 ㄴ의 通用

【ㄱ을취함】

얄팍하다(形)薄貌
얇팍하다

●ㄱ과 ㄹ의 通用

【ㄹ을취함】

달려들다(動)突入、襲
달겨들다
달라들다
돌멩이(名)石塊
독맹이
돌뭉이
지절거리다(動)亂言
지적거리다
지절지절(副)亂言貌
지적지적

●ㄱ과 ㅂ의 通用

【ㄱ을취함】

곡지(名)織紝屑
굽지

【ㅂ을취함】

곱새기다(動)曲解
곡새기다
곱사가다

●ㄱ과 ㅅ의 通用

【ㄱ을취함】

문득(副)忽然
문뜻
욕감태기(名)累辱
욕삼태기
욕주머니
욕자배기
욕사니

【ㅅ을 취함】

비슷하다(形)彷彿
비슥하다
선뜻(副)直
선뜩

●ㄱ과 ㅇ의 通用

【ㄱ을 취함】

광저기(名)豆
광정이
논적논적(副)脆爛貌
논정논정
발바닥(名)蹠
발바당

【ㅇ을 취함】

나부랭이(名)殘片
나부라기
더뎅이(名)痂
더더기
더데
던데
두렁(名)畦
두럭
두둑
두둙
뱅어(名)白魚
백어

●ㄱ과 ㅈ의 通用

【ㄱ을 취함】

개짐(名)月經帶
재짐
서답
귤(名)橘
줄
길(名)路
질
길다(形)長
질다
길쌈(名)紡績
질쌈
기름(名)油
지름
김(名)海衣、蒸氣
짐
김장(名)김장담다
짐장
김치(名)沈菜
짐치
짐채
기미(名)野蠶
지미
깃(名)襟、羽
짓
기장(名)黍
지장
기직(名)編席
지직
기지개(名)欠伸
지지개
깊다(形)深
짚다
팔따기(名)팔의部稱
팔따지
팔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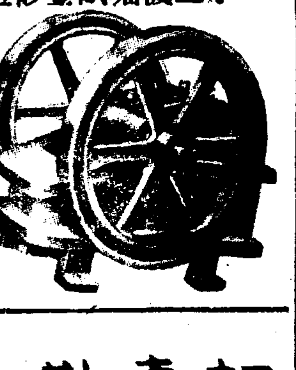
【ㅈ을 취함】

갱지미(名)小鍮器
갱기미
점심(名)午飯
겸심
진달래(名)杜鵑花
긴달래
진달레
왁저지(名)熟장아찌
왁저기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堀機로!

新案二二七二四〇號

特許一一二〇二九號


新案二三二一二七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 三六八 四四四 三番

朝鮮鐵工所

弊店創立五週年記念 大景品付大賣出

(S) セイコーシヤ地方時計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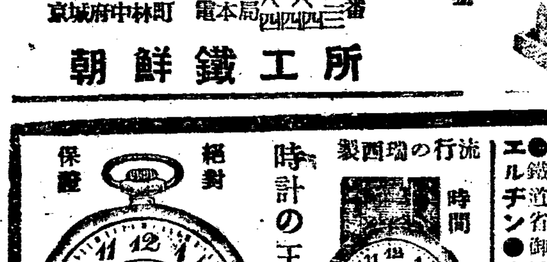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景品內譯▼▼▼
(1)註文高二十圓以上ナル時 舶來ボックス製靴一足宛(足ノ寸法文數指定下サイ)
(2)註文高十圓以上ノ時純毛コットンシャツ上下一揃宛
(3)註文高五圓以上ナル時ハ上等メリヤス上下一揃宛
(4)註文高三圓以上ナル時ハ上等毛糸靴下半打宛進呈

▲御註文ニ際シテ▼
※代引註文ハ內金トシテ註文高ノ三割以上御送込ノ方ニ限リ取扱內金ナキ場合ハ不取扱
※送料ハ前金ノ文者ニハ不要代引註文者ニ限リ四十錢負擔
※送金ハ小爲替カ振替ニテ東京八二四五四番ニ拂込ノ事

●見よ犧牲的此大奉仕を!
●浅くも無代進呈の大景品付!
●鐵道省御用提供時計の王タバン
●エルヂン十五年絕對保證

流行の瑞西製 時間正確



時計の王 タバン・ウオルサム・エルジン 絕對保證

クロム側懷中 鎖メタル付
クロム側腕卷 舶來皮付
クロム側ウオルサム懷中
クロム側タバン懷中
十八金HK側腕時計
十八金HK懷中時計

都賣散賣

鑛山用藥 工業衛生 醫療處方 醫藥材料 調劑器械 賣藥品 有名品

京城府鐘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話光化門(二)二五三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創業四十週年記念 景品付 秋季特賣
清酒 誠鶴
一等賞品 金指輪
醸造元 深見酒造場

株式會社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番

明一日부터 十日까지……大特價로犧牲的大奉仕

洋服部の大藏ざらへ

生地價引上時持越生地 一掃別誂大奉仕

冬背廣特價提供 三十三圓 三十八圓 四十三圓

冬オーバ特價提供 三十五圓 四十圓

ラシャ女子事務服 特價五圓均一

替ズボン 特價二圓八十錢均一

ハンパ物大處分

註文服과가튼 三中井のレデイメード

背廣……十八圓均一

オーバ……十七圓均一

トンビ……十五圓均一

京城 三中井 洋服部

廿九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特別大興行─
◇유나이데드社提供 론돈필림社超大作映畵 文豪H·G·웰스名著 世界最大프로듀서·알렉산더코다製作에依한
將來의世界
雄偉!壯大!!一大驚異的作品 將來의戰爭과文明의驚異를如實히暗示하는 古今에獨步的映畵界最大企業의 完成!!全京城話題의中心이되는問題作品의登場
◇유나이데드社超特作映畵 쫀지씨·하치슨主演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畵 高津慶子主演 勿忘의노래
雷鳴
◇東日大每國際뉴스
◇유나이데드社特作漫畵 天然色 高原의秋
天然色 밋기와名優의 對抗試合

團成社

◇十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 一時、밤 七時三十分始映
◇米國마스코트社超特作全發聲版 連續大活劇 뛰는 幽靈(前篇) 監督…리부스이─슨氏 蹴球王…렉드─렌지氏
◇冒險戰慄의連續은드듸어그高潮에達하얏다人間의智能과文明利器의決死的活躍으로興味百%
◇유나이데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近代脫線女性 監督…시드니랑후일드氏 主演…바바라스탄윅크氏
◇마키노토─키超特作品 時代劇 白浪五人男 監督…久保爲義氏 主演…月形龍之助氏

桃花劇場 藥峴桃花町

十月二十七日부터特別大封切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파라마운트特作日本版 女賊
獨逸오─사社特作大名畵 酒場の母
日活 次郞長身代旅 主演 阿部九洲男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스크린 [illegible] …… 場面이 이야기하고 잇다

演劇協會創立公演 『守錢奴』를보고 (五)

羅雄

클레안드(尹北洋扮)도 無難히 넘어갓스나 빠른臺詞와 나즌聲量이 보이엿다。

馬夫兼料理人짝크(姜洋洋扮)는 扮裝과動作은 欠잡을곳이 업스나 臺詞가좀不明瞭하얏다。

엘리―스(李白姬扮)마리안(韓順子扮)다 無難하엿다 똑똑한 臺詞와아름다운音聲과 함께 將來를엿보게하나 사투리가 각금 섞기게 欠이엿다。

下女役은 眞摯한 態度가 조왓스나 먼저 發聲法에 만흔工夫가 잇기를바란다。

안세름(柳邦扮)은 가진 波瀾과 風霜을겪근 貴族으로서는 餘裕잇는 動作과 그럴듯한 風采로 이役을 살리엿스나 다만 發聲에잇서 아직도 弱한것이 欠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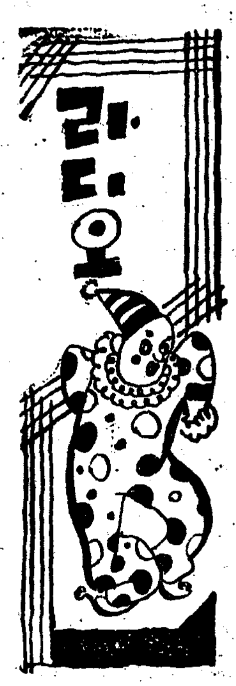
警官(全一松扮)도 無難하엿다 이분의 조흔聲量이 將來를 엿보게하다。

라프레―스(朴東和扮)는 演技한點이 매우 조왓스나 臺詞의 不明瞭가 큰欠이엿다

이번 演協公演의 演劇的實庫인 모리엘의 『守錢奴』를 上演하야 無難한 成果를 어덧음은 朝鮮의 演劇의 한指標가 될것이고 또모리엘의 演劇이야말로 演技術이 捕捉할수업는 數千의 徵候를通하야 우리의 作用하는 精神的表現을 갓고잇는가를 보여줄수잇는 絶好의 엑삼플이라 고생각한다

이런意味에잇서 아프로 演協의演劇이深遠하고 豊饒한內容과 藝術香氣로 가득한 노픈藝術的 水準에다 演劇을올려놀수잇다는 것을 깨닷게하는同時에 演劇의 根源的統一的現象인 엑쓰타시로 演劇과觀衆을 뜨거운불과 아름다운 일른쉰으로 結合시킬수잇는 唯一한 演劇的貯水池가되리라고 생각한다。

演協諸氏의 꾸준한 健鬪가잇기를바라며 妄筆을 擱한다 (끗)



三十一日 (土曜)

◇午後六時 코―넷獨奏와피아노獨奏 코―넷獨奏 WE노―벨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피아노獨奏와伴奏 헬렌、폭쓰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朝鮮日報社 咸尙勳
◇同七時三〇分 兒童劇『김첨지와 허수아비』一景 配役 여우甲…朴錦鎭 同乙…孫允烈 김첨지…尹長燮 양서방…朴民化 童心會 演出 朴興珉 伴奏 陸好吉 效果 效果班
◇同七時五五分 피아노獨奏 一、아침의祈禱…메진作曲 二、悲哀소나다…베―토作曲 第一樂章 尹琦善
◇同八時五分 野談 『까마귀의꿈』 申鼎言
◇同八時三〇分 女聲合唱 一、二部合唱 로―렐리―미―칠헬作曲 二、獨唱 매기의追憶…버터필드作曲…鄭玉珠 三、二部合唱 자장가…라우벨드作曲 四、二重唱 가을밤…윌이암스作曲…朴玉珠 李順福 五、三部合唱 시골音樂隊…웨―버―作曲 京城保育合唱團 피아노伴奏 李興烈
◇同八時五〇分 大笒과洋琴 大笒 金永模 洋琴 金桐准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京)講演
◇同七時五〇分(東)管絃樂
◇同八時三〇分(東)演藝探偵드라마

一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時調와音律 一、時調、(가)平時調 (나)辭說時調 二、音律、(가)平調會相 (나)三絃도도리 時調와洋琴 李承俊 短簫 崔壽成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어린이科學『酵素이야기』 朴吉龍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正勤正斷과安樂行』 佛敎時報社 金泰洽
◇同七時三〇分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한강수타령 四、사발가 五、흥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申海中月 洪笑月
◇同八時 라듸오드라마『女必從夫』 配役 姜主事…申左晄 趙氏…白銀姬 英鎬…(그의아들)宋在善 貞喜…河邊玉 同人會 演出 申左晄 效果 宋薰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玉樓紗窓 二、唱劇調 沈淸歌 劉弄珠 鼓手 丁元燮
◇同九時 宗敎音樂 一、찬양하세…월소作曲(女聲合唱) 二、금문을두다리신다…黑人謠(四重唱) 三、성모마리아…아―카델트作曲(四重唱) 四、주臺며나서…로우리作曲(混聲合唱) 五、전능왕오서서…로렌쓰作曲(女聲合唱) 六、주님의크신은혜…리리나스作曲(混聲合唱) 監理敎會神學校讚揚隊 指導 高鳳京
◇同十時 鮮滿交換放送(新京二重放送開始祝賀放送) 一、京城으로부터― 二、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 中繼― (가)管樂 萬波停息之曲(管樂、大笒、奚琴、唐笛、杖鼓、坐鼓) (나)合樂 長春不老之曲(編鐘、編磬、牙箏、管樂、大笒、奚琴、唐笛、杖鼓、坐鼓) 李王職雅樂部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朝鮮放送協會理事長 保阪久松

第一放送
◇午後六時〇〇分(大)兒童劇과童話劇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七時四〇分(東)物語
◇同八時〇五分(東)歌謠曲
◇同〇〇分 鮮一〇鮮滿交換放送

二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第二情報部』 徐相弼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感氣로생기는病』 金光鉉
◇同六時 童話『그리운자장가』 康承翰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米穀自治과米價動向』 鄭秀日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朝鮮의婦人問題』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 流行歌 一、한숨 全壽麟作曲 二、靑空九萬里 羅素雲作曲 三、갈대꼿 全壽麟作曲 四、沙漠의旅人 羅素雲作曲 五、나그네사랑 全壽麟作曲 六、異域의길손 羅素雲作曲 李圭男 DK管絃團
◇同八時二五分 大笒獨奏 一、散調 二、鳳凰吹 朴鍾基 鼓手 韓成俊
◇同八時四〇分 報念 一、報念 二、곰자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타령 趙素玉 金素姬
◇同九時五分 回心曲 金壽男 辛嗓山

第一放送
◇午前七時一分(東)基礎英語講座(十八) 鷹谷榮
◇同十時卅分 家庭講座 鎌田澤子
◇午後零時三分(東)漫談 牧野周一
◇同二時(東)婦人時間
◇同六時 唱歌史劇 龍山小學校五年生
◇同七時卅分 講演
◇同七時四十分(東)講演 幸田成友
◇同八時(東)東오도리―新橋芸
◇同八時四十分(東)聲色
◇同八時五十五分(東)라듸오드라마(放送文選懸賞當選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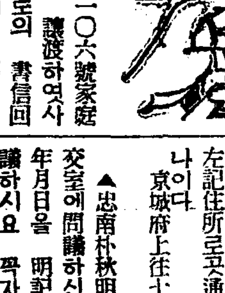
歌劇『興甫傳』公演

時日 十一月六日부터(五日間)
處所 市內東洋劇場에서

總指揮 李東伯
演出 丁貞烈
脚色 宋萬甲
出演 金昌龍 吳太石 金容承 韓成俊 朴綠珠 林小香 趙相鮮 丁元燮 丁南希 金任壽 姜太弘 金世俊 金演洙 外多數

入場料 階上九十錢 階下七十錢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그레비아蓄音機一〇六號家庭用은 市內讀者에게 讓渡하엿사오며 其後地方讀者로의 書信回答을 代하야 讀者欄을 利用하오니 諒察하시압 西大門町二丁目一의四九 田浚

▲社交室! 讀者諸賢에게 告함 數日前朝鮮日報紙上에 發表된東亞配給連鎖店을 募集發表한東亞配給本店이 誠實한지 안한지 아시는분이게시면 未安하오나 下敎하시는분이게시면 大端感謝하겟습니다 開城 알고저生

▲四海諸氏 安寧하십을 伏祝 生은 十九歲男子인데 身體健康 最初에 漢文을 工夫하야 四書를 通讀하고 公普에 入學하야 一年부터 六年까지 來來一號優等으로 卒業하고 此以上工夫를 하랴도 學費難出함 道理가 업서 向學에 타는가슴을 억제하고 도라와 私立學院敎員을하다가 事情關係로 辭免하고잇는데 江湖諸位께서는 불상한 生을 救하야 주시엿으면 學院敎員으로나 醫師助手로든가 萬方으로 職業을 求하니 四海同胞들은 同情하야주시오 養子도 願합니다 平南中和 向學熱生

▲小生은 今年二十才男子이온대 理髮免許가有하온데 집에놀고 잇스니 同業諸賢께서 法定代理或은 職工으로 使用하야주심을伏望합니다 但地方에도가겟사오니 左記住所로곳通知하야주시기바라나이다 京城府上往十里町四七一ノ九五 元在國

▲忠南朴秋明氏게 좀함 本紙社交室에問議하신 貴下에從兄의生年月日을 明記하야 左記所로問議하시요 꼭자든이름이만흐니다 左記所로 問議하시면 仔細하게通知하겟소이다 寫眞을보내면 더옥조켓소이다 京城府寬勳町一五五番地 ラッキ整髮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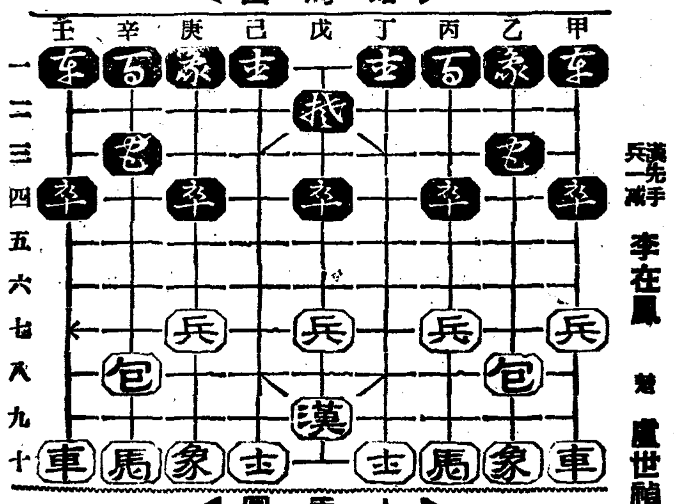
▲中央保育在學生 또는 卒業生(今年)諸兄께뭇습니다 今年卒業하신 盧天命氏에 現職幼稚園을 아시는분이 게시면 本報讀者社交室을通하여 알니여주시면 고맙겟습니다 萬一就職하시지안호셧다면 現住所라도조습니다 樓下町 金永姬

▲讀者諸位에게告합니다 生의 早稻田式速記講義錄(普通科나速成科나無關) 全科를欠得코저하오니 讓渡하실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오면고맙겟습니다 宣川邑內川北洞一七五 咸赤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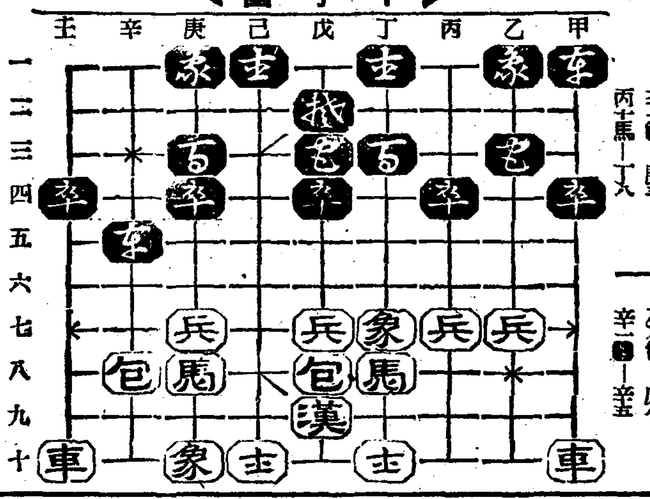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漢先手 兵一減 李在鳳 楚 盧世禎

始局圖



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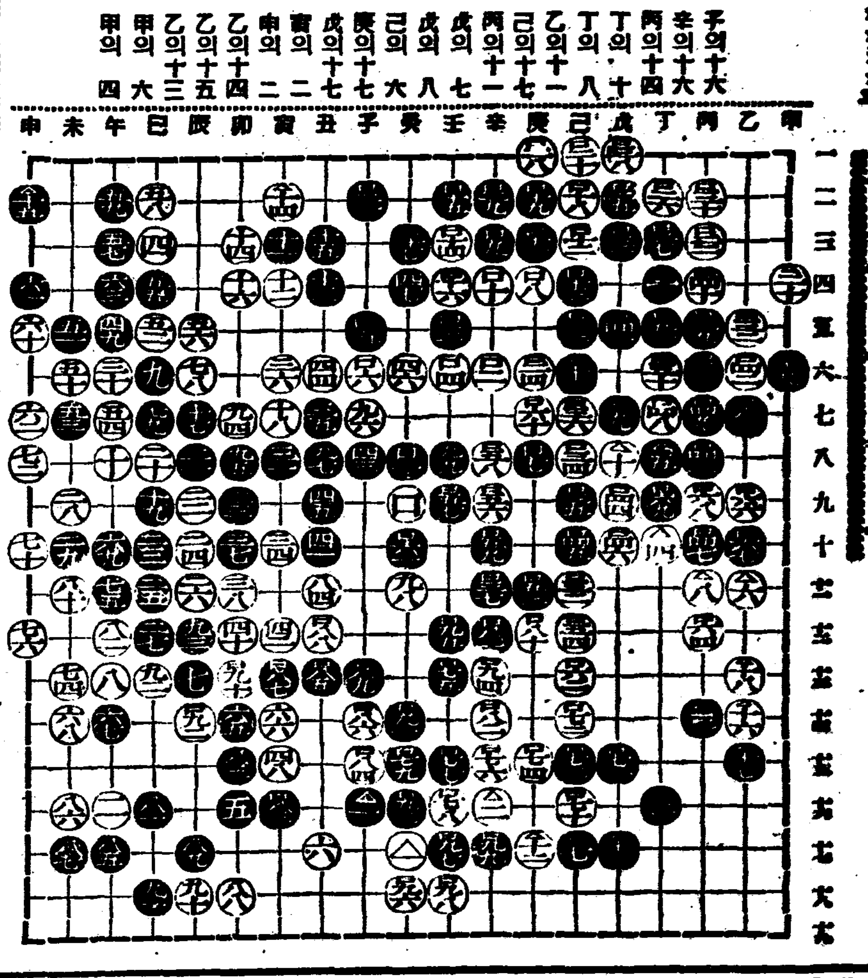
甲七兵―乙七 丙一包―丁三 辛十馬―庚八 辛一包―庚三 丙十馬―丁八

辛三包―戊三 乙七象―丁七 壬一包―辛一 乙八包―戊八 辛一包―辛五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3—

白 鄭達源
黑先 李浩性



●一一一 子의十六
○一一二 辛의十六
●一一三 丙의十四
○一一四 丁의十
●一一五 丁의八
○一一六 乙의十一
●一一七 己의十七
○一一八 丙의十一
●一一九 戊의七
○一二〇 戊의八
●一二一 己의六
○一二二 庚의十七
●一二三 戊의十七
○一二四 寅의二
●一二五 申의二
○一二六 乙의十四
●一二七 乙의十五
○一二八 乙의十三
●一二九 甲의六
○一三〇 甲의四

蔡極文氏評日 黑白雙方에 瓜城이 己定하고 變動이 別無하지라 計其優劣에 黑이 多敗不及幾으로 終局을 不客하노라

白 鄭達源
黑 李浩性
白不計勝

一席話 (바보들·배우는사람) 李殷相
朝鮮舊習의美點과缺點 黃義敦
娛樂과人生 金晉燮

秋校長…… 畫報
麗人巡訪
未來의女人畫室과 그作品
가을도 마저간다 ★
女人들께못는말과 …… 며한말
家族으로性格과 運命을 判斷한다

울며떠나간 그女人의 이야기!
빠스켓을들고떠나간女人 李相昊
나도 안보고 간 금이 愼弦重

高句麗의 옛傳說
鹿足夫人 車相瓚

正音小史 (한글은 언제 어떠케되엿나) 湖岩

女性界消息、藝園漫步、失戀하는까닭? 웃지맙시다 처음듯는이야기 — 常識辭典? 內外珍聞 젊어지는飮食 燻料理製法 笑話

漫畫 아이•가치•쇠돌이야기 은홍임……
우리살림을改善하자 尹聖相
美容•結髮•매니큐어 吳淑根
五男六女兒歲 세―타짜는법 金順喜
◆가을과流行◆

家庭讀本
롤스토이翁과그夫人과의不和에對하야 成大勳
우리家庭에必要한레코―드音樂 洪人集
그분들의週末플랜 垂涎生
우리家庭에常備할藥은? 張文卿

女人劇 낸의悲劇을보고서 朴基采

열넘도이름다운美人들을 妖物처럼 또는仙女처럼보앗습니다
各界學者가본美人의定義

隨筆 어느날午正 鷺山
隨想 어린아이와내論文 金基錫
漫文漫畫 晚秋街頭風景 崔永秀 남의흉내만 내려고드는거리의流行女를諷刺햇습니다

女學校時節의 로맨쓰

□그날의생명……張德祚
□佐保河畔에서……許河伯
□追憶이새로워……金微園
□이마음모르는가……崔東珠

母性愛 金與濟 性愛는 더고귀한것입니다 사랑하는마음은 아름다운것입니다 그중에도딱

紙上映畫 地平線을넘어서 (미운사람과사랑하는사람의이야기)

우리學校자랑 (淑明篇)

女性 十一月號今日發賣

倍大增頁斷行 百餘頁의美本 定價二十錢(送料二錢) 振替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우리집食卓의한가지자랑……李應淑
렌의哀歌(第五信)……毛允淑 렌은곱고 아름다운 마음을가젓습니다。그는 부인잇고 자식잇는 사람! 시몬을 사랑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가을과小兒攝生法……趙東秀
性•生理拿……鄭槿陽 女學校에다니는 학생이나 學校를卒業하고 집에들어안즈신분이나 處女이면 누구나 똑가티 읽어야할 글입니다

☆短篇小說☆
안해 安夕影
不傳딱지 蔡萬植
鄕愁 朴泰遠
바다의小夜曲 鄭飛石
콩트 가을밤 安懷南

詩 金起林 東方紀行詩
汽車外一篇 李貞求
풀닙맛서요 林春吉

美人과健康美 洪鍾仁
家庭太平記 李榮敏宅
李榮敏氏와 李鍾貝氏는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조용히잘말씀하십니다。

十三道 女性巡禮記 (全道通覽) 蔡萬植
家庭生活과迷信의弊害 孫貞順

新案 專賣特許

一粒肝油 ハリバ (하리바)

적은量으로도 훌융한効果가잇는 聖魚肝油가 世界的大發明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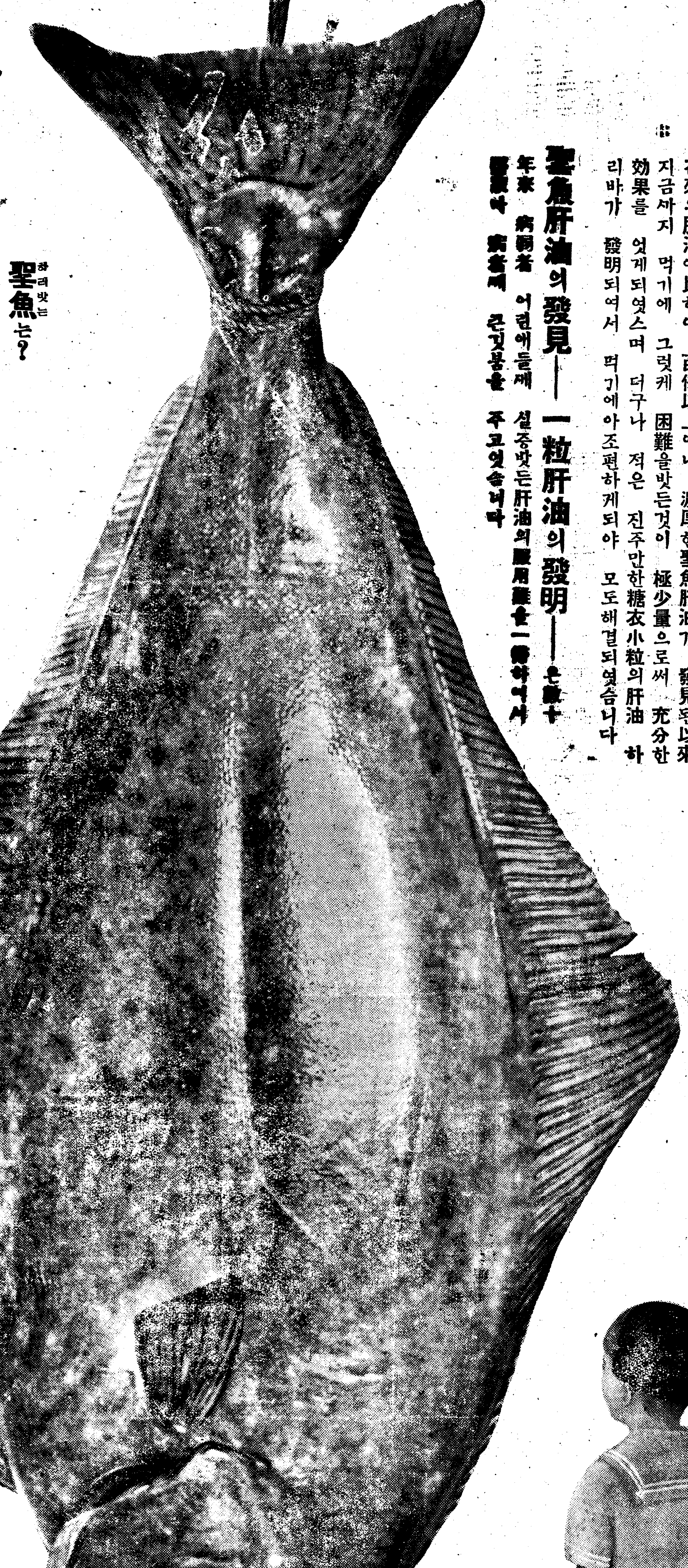
지금싸지에는 모든病의豫防과治療에는 肝油가제일좃타는것은모도아시는바이오나 먹기에불편하고 만은分量을먹어야되는페단이잇스나 왜肝油가조흐냐하면 가을부터겨울싸지에걸니는病은 대개감기로부터시작되나니 이런病에걸니지안토록 몸에抵抗力을굿세히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사람몸에가장 貴重한榮養素비다민A가必要하니 이것이體內에不足된時는 입、코、인후、기관지、페등의粘膜表層이弱하게되야 감기균이나 肺炎菌이범치우기쉬워서 病에곳걸니게되는싸닭입니다

肺・氣管支・肋膜이弱할분이나 감기에걸니기쉬운분・腺病質의아해・視力과 齒牙가弱한분 姙娠前後에 醫師諸氏가 肝油를 勸하는것은 이런理由로 그런것입니다

在來의肝油에比하야 百倍以上이나 濃厚한聖魚肝油가 發見된以來 지금싸지 먹기에 그럿케 困難을밧든것이 極少量으로써 充分한效果를 엇게되엿스며 더구나 적은 진주만한糖衣小粒의肝油 하리바가 發明되여서 먹기에아조편하게되야 모도해결되엿습니다

聖魚肝油의發見——一粒肝油의發明——

은數十年來 病弱者 어린애들께 설중밧든肝油의服用難을一掃하여서 醫療界와 病者께 큰깃붐을 주고엿습니다



聖魚(하리밧)는?

北洋의深海百尋부터 三百尋어나되는海底에 사는생선으로 큰것은 二百키로前後나되는 巨魚도잇습니다만은 그肝臟은 極히적으니 그것에서 나는肝油도 極히微量이나 그含有비다민量은 지극히濃厚합니다 이것은 數十年이나두고 대구(鱈) 그外의생선을 먹고잘아나서 莫大量의비다민을 그肝臟內에 自然的으로蓄積식히고잇는싸닭에 그럿습니다

호흡기병・몸보양에특효잇는간유의진국이니 먹기에 좃코 한개는 간유四匁의효과가잇슴

하리바의特長

첫재로 普通肝油에比하야極少量으로 充分히 훌륭한効果를엇게되며 둘재로 그効力이 均等한것이며 셋재로 胃腸에 조곰도 害롭지안으니 배속이 거북하거나 배만 불너지는법이 업소며 가지고 다니기에편하고 아모리 藥을실혀하는사람도 잘먹을수잇슴으로 매우 有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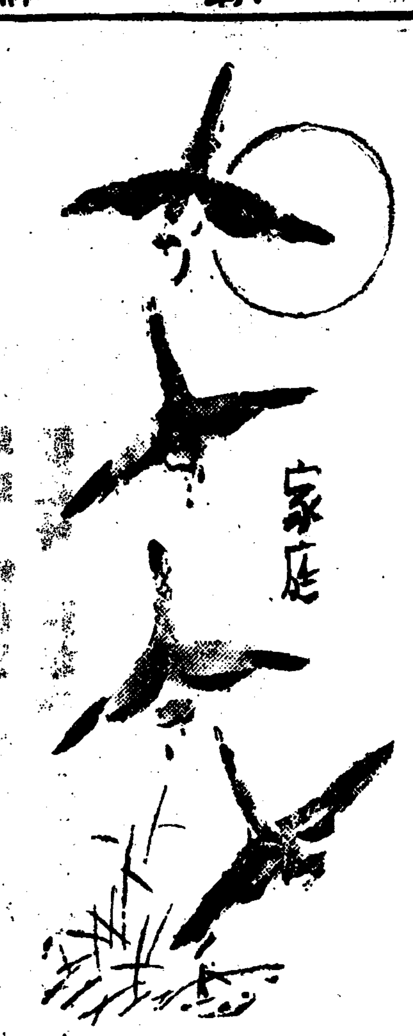
一日量
幼兒……一粒
小兒……二粒
大人……四粒

百粒 (幼兒三ヶ月分 大人一ヶ月分) ……二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局에잇슴니다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겨울차림

家庭



보기실흔 고수머릴랑 "웨브"에이용하자
안악네의미는대반이머리털에
붉은머리도검게할일

동양서는 검은 머리를 첫치만은 서양사람의머리는 반듯이 검은 것이아니요 또 동양서는 고수머리를 조와하지 안치만은 서양사람의 머리는 꼬불꼬불하지 안흔것이 거의 드믑니다。넷날에는 챙피하야 조금도 행세를 하지 못 하든 고수머리 붉은머리가 버젓하게 내로라고 들날릴판입니다。그러나 일부러 보기조케 웨브를하기위하야는 도리어 아모러케꼽실거려 노흔 고수머리가재미업고 또 서양서도 금빗머리는 칠흑갓흔 붉은머리는 치지 안습니다。안악네에게잇서 붉은머리、고수머리가 걱정되기는 녜나 지금이나 매일반입니다。

고수머리는 아조 꼽실거린 것을 쭉 펴 노커나 또는 그 것을 잘 이용하야 보기조케 웨브를 하거나 둘중의 하나인데 아조 펴는 편보담은 차라리 잘 리용해서 웨브를 하는 편이수월도 하고 혼쥐도 업습니다 그러니까 자긔의 얼골로 보아서 어떠케 웨브를 하는 것이 조흘까 몬저 따저본 다음 다시 자긔의 고수머리를 가지고 어떠케 그러케 웨브가 안 될까 잘연구해서 할 일입니다。히여튼 오리브기름을 머리에고로 배도록 머이고 머리지지는 인도로 눌르면 얼마쯤 고수머리가 펴지기는펴집니다。또머리를 흥신 적신뒤에 기름을 발러 노코서는 빗을 두서너개 찔러서웨브를 맨들면 어느정도 까지 ...

그런데 × 머리지지는 인도를 잘못 쓰다가는 머리를 뻑뻑 부서질러 노키가 첩경이라 그것을 잘주의해서 하여야합니다 뎌운 정도로 논지하랑이면 손을 오분쯤 배고 대어보아서 좀 뜨뜻한 늣김이 생길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볼것입니다 아조 뜨거운것은 금물입니다 신문지가 누를 정도의 것은 피하는것이 조습니다 하여튼 고수머리나 붉은 머리나 늘 꼬실꼬실하게되야잇기때문으로 인도를 쓰기는 쉽습니다。단지 뜨거운 인도를 잠간동안 하는이보담 좀 약하게 해서 오래 지저야만 머리털을 상치안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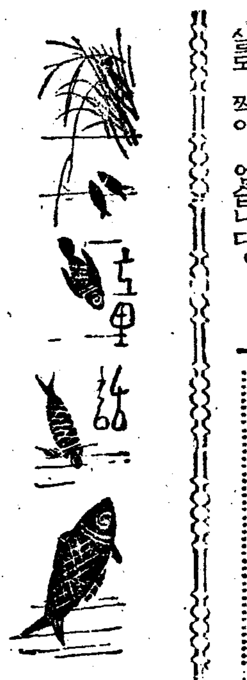
× 붉은 털을 검게 하는데는 식물성(植物性)의 기름을아침과 나즈로 하로 두번식 눌르비어 문질릅니다 기름을 바르고 나서 뜨거운 물수건으로 머리가지고 눌러 두면 모근(毛根)이 충분히열리여서 기름이 아조 그 속까지 배어 들어 갑니다。

붉은 털이라고 족집개 가튼 것으로 뽑아 버리려다 가는 괴롭기만 하지 아모 소용이 업습니다。다시 그 자리에서 나는 털도 역시 검은 털 보담은 붉은 털이 나오게 되기 쉽습니다。또 보통을 되지 안흔 물스감으로 염색(染色)들을하는데 그역시 재미가 업습니다。세수하는데 고만 벗기어 지는 것은 물논이요 녀름가튼때 땀이나 철철 흐르는 경우에는 불편하기가 실로 짝이 업습니다。

【童謠】 포푸라나무

포푸라나무는
싸리비 란다。
하나、둘、셋…
늘어서서 하늘을
씬다。
새ㅡ파란 하늘엔
구름이 한점도 업다。

임원호



왕자와거지 ⑤
마ー크·토웬 作 崔秉和 譯

『파수병정、너는 왜 그러케 무지스러운짓을 하느냐。우러케하야도 상관 업슬줄로 생각하느냐。ー관계업스니문을열고 소년을드려오게하여라。』

파수병정은 과착을하드니 밧드러창(槍)으로 경례를하엿습니다。그리고 급히문을 좌우로 미러열고 또긔착을 하엿습니다。그리는 동안에 롱은 꿈속가티이리나서 창살을틀고잇는 파수병정사이를 빠저서 아름다운정원(庭園)속으로 뛰여드러갓습니다。[illegible]라서 롱을맞으라고하엿스나 왕자님이 가볍게한손을들자 그냥잠잠하고 헛섯습니다。

롱은 공경스러운태도로 왕자님아프로 나갓습니다。그리고 왕자님이 내미신손을 굿게잡엇습니다。

『지금파수병정이 너무무지스러운짓을해서안됏다。용서해라。너를보니깐 기운이업서보이고 또배가고픈가보구나。자ー나를 따라오너라。』

이러케 말슴하시고 왕자님은 압장을서서대궐안 어느조고마한방으로 롱을데불고 드러가시엿습니다。그곳에는 푹신푹신한의자가 만히노혀잇섯습니다。

얼마안되서 왕자님의명령으로 롱의아페는 맛잇는음식이 노여잇는데 그것은 책이외에서는 보일이업는 아조맛잇는 요리엿습니다。왕자님은 사람을다내보낸뒤에 롱은 목구녕을 꿀걱꿀걱하면서 먹기시작하엿는데 그동안에 왕자님은

『네일홈은 무엇이냐?』하고 무르시엿습니다。

『네 저는 롱·칸티라고합니다。』

『롱 조혼일홈이로구나。그리고 어듸서사니?』

『잡스러운길 쓰러기버리는곳에 살고잇습니다。』

『잡스러운길? 그것은 우수운 동리로구나。부모님은 다계시냐?』

『네、전하(殿下)그리고 아조무서운할머니가계십니다。누님도두분계십니다。』

『너의할머니는 너를귀애하지안나보구나。』

『귀애해주시기는커녕 저를 주무실때하고 약주취하실때외에는 늘맘다 때려만주신답니다。』

『뭐、때려? 어린너를。응 할머니는 란군(亂軍)이 두는곳속에 가두게할터이다 그러니 걱정할것업다。』

『왕자님! 런던탑은 벼슬 노픈사람을 가두는곳이라는말을드럿는데요 저의할머니는 천한사람입니다。』

『응! 참、나는 깜바 이저버렷구나。그러면 다른벌을 씨우도록 생각해두마。ーー아버지는 어떠냐?』

『아버지도 할머니와 가튼사람입니다。』

『그것 참안되엿다。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럼한무지스러운짓은 아니하신다。손만 때리시는일은 업다。ㅡ 그리고 어머니는 어떠냐?』

『어머니는 참말 착하신 어른으로 저를 퍽 귀애해주십니다。어머니는 저에게슬픔과 괴로움을 주는일은절코 아니하십니다。누님두분 [illegible]』

『나희는 몃살이냐?』

『열다섯살입니다』

『우리누님 「에리자베스」공주는 열네살이란다。사촌누의 『젠그레이』는 나와 동갑이란다。아조 엄전하고도 잘생겻단다。그러나 큰누님 「마리ー」공주는 참말 고집이 만흔분이란다。이것봐라、저 웃는것은 죄악이다。그러니깐 우스면 사람의 혼이더러워진다나。그까닭으로 우서는안된다 하고 시녀(侍女)들에게 명령을 내리엿스니 너의누님들은 하인들에게그런 무리한분부는 아니하겟지!』

『하인요? 왕자님、누님들이 하인을 부리고잇는줄아시엿습니까?』

『하인이 업단말이냐。그러면 잘때 누가 옷을 벗겨주느냐? 아침이러날때는 누가 시중을들어주느냐?』

『아무도 업는데요。우선 넘이나저나 옷을벗고 자지를안습니다。옷을 버스면 즘생처럼 발가벗고 자게되지요。』

『그럼 옷이한벌밧게 업단말이냐?』

『네、그럿습니다。몸이 하나밧게업스니깐 옷도 한벌밧게 더잇겟습니까?』

『그것참 그럴듯한 생각이다。그러면 너의누님들에게 내가옷을 만히 보내주도록 관리(官吏)에게 일너두마。ーー너는 바른말만 하는데 어듸서 공부햇니?』

『공부허일은업고 그저 안도루하라버지에게 배웟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잡스러운길이야기를 좀더들려주렴。너는 그곳에서 재미잇게 지냇느냐?』

『네、배기곱하서 견될수가 업을땐 재미납니다。[illegible] 『펀치』신파가 두로오고 원숭이연극이오고한답니다。그중에도 원숭이연극이 자미잇습니다 원숭이한놈이 장사복색을차리고 수십명의한들과 싸와서 그악한들을 다죽엽니다。그런때는 참말 용맹스러웟습니다。그러나 구경갑시 오전이든답니다。이 오전을 변통하는것이 힘이 퍽듭니다。』

『응、그리고또?』

『그리고도 우리들은 대개 비칼을가지고 날리차롱자란을합니다。』 놈이 이런이야기를 눈을반짝반짝어리면서、

『응、그것은참자미잇지 나도 퍽조와한된다。』하고말습하섯습니다。

『녀름이되면 우리들은 개울과운하(運河)로가서 헤염을칩니다。물속에서 (숭박곡질)위에서 꺼꾸로떠러지기도하고 이러한작난을하면서 논답니다。』

『그것은 참자미잇겟다。나도 한번그런작난을 해보고싶다 한번그런작난을 할수잇다면 영국나라와바꾸어도조타。』

第一回全朝鮮敎會音樂合唱大會

時日 十一月二十三日(月)午後七時
場所 京城府民館

規定

一、本大會는每年秋期에京城에서擧行함
一、本大會에優勝한合唱團에게는特定한優勝旗를授與함(但優勝旗는次大會까지保管하고 三回連勝한合唱團에게는此를永久히授與함)
一、本大會參加合唱團은全朝鮮基督敎(何派를莫論하고)敎會合唱團에限함
一、參加申請書에는該當敎會擔任牧師의認印을要함
一、出演合唱團은必히二曲을演奏하되
A、一曲은主催者側에서指定한曲(別紙添付)
B、他一曲은自由選擇曲(申請書同時提出)
一、審判은本主催者側에서指定한專門家委員의採點規定에依하야此를行함
一、本規定에記載치아니한事項은一切慣例와審判會의決議에依함

申請

一、期限 昭和十一年十一月末日까지本會에到着함을要함
一、費用 本會參加費用은各自가負擔함
一、主催者側에서定한曲譜가要할時는本會에請求함을要함(但三錢切手添付)
一、歌詞는許可手續에必要하오니國文一通과此를和文으로譯한것을參加申請書에添付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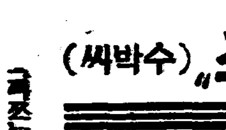
主催 京城貞洞第一敎會엡윗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위생에적해로운 주러든속샤쯔
그러니빨기를잘하십시요、

헌샤쓰나 머리야스샤쓰류는 여간주의하지안흐면 빨때마다줄어들고 안이좁아지는폐단이잇습니다 어떠케 줄러든샤쓰는 위생상으로나 보온상(保溫上)으로나 [illegible] 위생상으로는 헌샤쓰 허해롭습니다 주려든 헌샤쓰의성질의변화를 아려보면 섬유(纖維)가 서로붓치어서 구더짐으로 험과 험사이에 틈이업고 의복재료로서의 생명이라고할수잇는 통기성(通氣性)이 적어지며 섬유사이의보온층(保溫層)이 적어짐니다。이 상쾌하다는것은 새온 옷을 입어서 따뜻하고 마음[illegible]으로서 더위진 공긔를 적당히 섬유사이에 간직하면서 체내로부터 피부를 통하야나오는 깨스나 배설물ーー땀가튼것을 바깟태내어보내고 신선한공긔를 쏘이도록 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주러든것은 흡사하의가려서 공긔를 바꾸어내는기능이 경혀업서지고 라분하게 과분이 나쁘며 조곰만 운동을하야도 땀이 겹신에흐르게 되며 사쓰도 몸에추긴 [illegible] 와 몸에서나오는 까스 라던지 피부에서나오는 공긔의환기 [illegible] 오게 한다면 사람은 그만칠식해죽어버리는것입니다 적은것을 무리하게 키워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슴을 압박하고 더운한기들을 가저오며 [illegible]

남편의수염깍기 대경기!

어이 말로 미국에서아니면 구경할수업는 『안해가남편의수염깍는경기』올시다。어제든가에 수염달린사람도아니요 나무로 깍가맨든사람도아니요 쇠털을 뒤집어쓴사람도아닌 아주 안해고사랑하는 남편이죽이므로 아무리케거나 면도를해서 포를 들수는업습니다。그러나까 선수들은 남편자 파자니 등에서 찬바람이 날 지경이지요 경정은 여섯째가 한카운데 [illegible] 는 태열스들은 얼굴신물합니다 그런데 이경기에 우승한사람은 모두가 가장인한때들이라하니 저 옥이 경하할빼 아니겟습니까



(씨박수) "쓰ー파"
"한알을까는동안 무르녹는세상사"
중국사교장에는업지못할물건
해로운ー담배보다뜻이깁다

『과즈』(瓜子)수박씨는 연회 [illegible] 한다면 거서 마음이 어떤지 괴롭게될니다 그래 물론하고 중국사람에게대하야서는 업지못할 물건의 하나입니다 어떤회석에서 [illegible] 지켜도 너무 심심해서 손을 가만히 두러해도 좀강증이 나고 또 입도 가만히 다물고잇스라면 궁금증이 생 [illegible] 에 모든 사람들은 『과즈』까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의목에 버독이되는 술、담배보담은 이『과즈』까기는 뜻 [illegible] 모미가 잇다고 할수잇겟습니다。

◇ ◇ ◇ ◇

『과즈』의종류

『과즈』는 대과인(大瓜仁)업니다。다시말하면 대과씨업니다。대과의형상은 수박과저배격으로 대체로보아 수박보담 적게생겻스나 줄기와이른 엄전히가타서 중국남북가지에서 만히산출합니다。그심는방법은 보통으로 응 [illegible] 파종하고 입분 등배틀[illegible] 하흡이도다나면광 이건조지안홀정도로 때얼아참저 녁으로 물을부어주고 개화고에는 청만(沉藥)허맛[illegible]등을거 절하야 과의양분을 조장케합니다

맨드는 법

대과씨를 잘[illegible] 따여(除[illegible]) 다。 느진여름에이르면 대과가성숙하는데 그때에 대과를따서배를갈라 씨를긁어내는데 씨빗갈은검고커서 소외[illegible]즈(生瓜子)라고합니다 매번조기울에 놓가에서는 씨를내어 [illegible] 씨에부는[illegible]을 [illegible] 평평한곳에다 펴고 태양에말려우는데 만일 평평한곳에 펴서 말리지안흐면 『과즈』가 꼬부라지고 찌그려저서 까먹기에 불편하게됩니다

그맨드는방법은 중국에서도 남북이 다다르니 천진(天津)、북평(北平)지방에서는 『수쌍과즈』(五香瓜子)라하야 정향(丁香)、계피(桂皮)、백지(白芷)、대료(大料)、회숙(茴香)등 다섯가지재료를 적당히혼합하야 끌른물에당가 오미향을만든후 소금으로할 마치간을처서 [illegible] 대과씨를 그오미향에당가 그랑맛이 대과씨에배이게합니다。

또 상해지방에서는 『향이우과즈』(香料瓜子)라는것이 류행되는데 이것은 잘마른 대과씨를 맛조흔가장에다 당가두엇다가 맛이배이면 그가장에서 건저내어 해비체 대강 말리어서 까먹는것입니다。

광동(廣東)지방에서는 광서산의 『홍과즈』(紅瓜子)라는것이 류행하는대 그것은 생김생김이 퍽 적어서 말린후에는 아모 가미도하지안코 그냥까먹는것입니다

이밧게도 『계화과즈』(桂花瓜子)『감초오과즈』(甘草瓜子)『매괴과즈』(玫瑰瓜子)『사[illegible]과즈』(蝦[illegible]瓜子)등 그종류가 만히잇습니다。

중국에 오인팔보(五仁八寶)라는것이잇습니다。대과씨뿐이아니라 조선에서 실백(實柏)을 [illegible] 만히먹는것이니

까먹는 법

까먹는방법은 허다하고 또교묘해서 중국사람들은 손을대지안코 이로만까서 알맹이만먹는것도잇고 또는 두알식 한꺼번에 까지안코 세워까는법 엇재든 모두중에 괴승[illegible] 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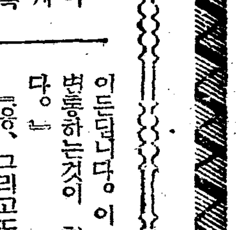
【귀동냥】
코피에국화입
국화꼿츤 불로장수의 축주로 유명한 국주(菊酒)를 만드는것 뿐이아니라 국화업사귀는 코피를맛는데 아조요약이됩니다 국화입사귀를 소곰으로 죽여서 코구녕에 막아두면 아모리 대단하던 코피도 씻슨듯이 것습니다。

터을지도안코 사람의 몸에도 라다일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는 까닭에 사람에 따라서는두통을 이르키는 수도 잇습니다 또한이것은 피부의신진대사를 방해하야 감긔를들게하는것밧게는 아모것도업스나 아모리경제를 한다하더라도 위생상에 나쁜、과 따뜻하지아흔것을 엄욱필요는 조곰도업습니다

신사용화장긔구 콤팩트가나왓다
ー갑도싸고편리해ー

녀자는 콤펙트를 가지고 단이면 적차안에서나 길거리에서라도 자긔소용되는대로 간단히화장을 할수잇습니다 그러하야그 콤펙트속에는 볼볼것을녀허가지고단이면서 코가높다라케 빼기는것입니다 그러나 요사히는남자도 모양을 녀자처럼내고 단이는세상이니 남자라고 어찌콤패트가 가지고 단일、콤펙트속을열·글때 얼마나 요사히 남가 어보면 위선안전면도가 나옵니다 이안전면도라는것은 엄청나게적은면도로서 적은상자속에너허서둘면 손아궁지에 쏙들어가서 무엇을 집어넛는지안집엇는지 모르도록 되여잇습니다 와솔할때는 포켓트에 슬적너허도 쏫토록되여 잇습니다 여페잇는담배와비교해보면 사진과갓습니다 부인들이가지고 단이는 콤펙트를가 가안입니다 남자나 콤펙트를가지고 단이는것은 ……하고이상스럽게 생각할니도업시 그콤펙트는 벌서안전면도로 변해버렷습니다

『사나히는 거울이 소용되지안는다』ー이것은 무슨야만적인 소리입니까 남자가가지고 단이는 것을! 직경사촌면은 도처보기로되여잇는데 수염까끈것을 까글때 부분적으로 혈루녕기튼것이 크게보이도록 되여잇습니다 이것은 모다 편리하기 짝이업는데 서양이야기가아니라 서울서도 볼수잇는것입니다 갑슨일원으로부터 이원까지잇습니다。



連載野談 布袋記 (一五○)
申鼎言 作 金熊超 畫
(不許轉載上演)

마저숙기소원(九)

이철이가 뎌용에게 청넛는법을 한참 설명하는중 별안간대문을 열라는 큰소리에 놀내어 말을끄치고 그목소리를 유심하듯다가

『에잉。망할 자식。웨 이밤중에야 와서 야단이야!』하며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서서 대문을 열엇다。

으로 술냄새를 약간 핑기면서 들어서는사람은 그창두이엿다。

『허허。미안하구랴。주무시는데 웡 나으리께서는 아마 취침 하섯겟지요。』

하며 그 창두는 이철에게 대하야 변주구레한 인사를 치르며 리선전관이 자고 아니자는 여부를 물엇다。

『천만의 말슴。나으리께서도아직 안주무실것입니다。담배대 터시는소리가 좀음전까지 낫스니깐。로형을 종일 기달리시느라고 매우 초조히지내섯는데 주무시겟소。』

는데 주무시긴들 그러케 얼히 [illegible] 하며 이철은 그 창두를 실름히 집어뜨는 언사로 대답을하얏다。

에이 황송한일이。그러나 나으라 일은 참으로 사개달이가 잘 마저 들어가오。』

하며 그 창두는 또한 구수한 말로써 이철이가 솔그머니 집어 뜨는 말을 눅혓다。

이와가티 이철이와 창두 사람이 대문간안에 선채로 수작을 하는중에

『어헐!。거ー누구냐』 고 리선전관은 어찰을 불러섯다。

그 창두는 리선전관이 곡저창을 아니자는것을 알고 이철을 아니하섯구려!』

『아하。나으리께서 그저 취침하고 곳 중문안으로 들어서서

리선전관에게 인사하야다。리선전관은 그 창두의 목소리를 듯고 크게 반자워서 방문을 급히 열면서、

『오옹。들어와。어찌그리 늣게서?』

하며 그 창두를 방으로 불러드렷다。

『예。늣게서 황송합니다!』하고 그 창두는 허리를 한번 굽신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웃목에 섯다。

이에 이철이도 단정히 방안에 들어와 웃목、재터리、타구등을 한번 휘둘러보아 아시 방을 무치어가 공손이 섯다。

『어이 가기만정 그러데 어째 그라 늦것지。그렇게 들를 바삐서그래 한다면?』

그 창두는 다시 허리를 한번 굽실하며

『예 늣게는 그럴까닭에 늣엇습니다만은 놋드래도 와서 뵈와야만 하겟기로 이제야 왓습니다。』

『응 이야기해!。』

『그른 백낭을 아씨께 갓다 드렷더니 아씨께서 돈을 바더 갓수하신뒤 꼭 대감께 으로 가시면서 기뎌려라는분부가 게 심으로 그대에서 기달렷삽드니 이제야 돌아오셧습니다。』

『오오。그래서?』

『그 아씨 말슴이 일은 잘되게되엿스니 염려를 말되。종더 속히 성사를 하려거든 소인더 마마님、윤승상댁 마마님、신부원수댁 마마님께 만히 쓰실것은 업고 돈 오십냥식만 갓다 드리면 조켓스니 나으리께 엿주어 보라고하십니다。』

그 창두는 리선전관의그 색을 살피엇다。

대저 윤승상댁 마마님이라는 것은 즉 령의정(領議政) 윤방(尹昉)의 첩이오。신부원수대 마마님이란것은 즉 부원수 신경원(申景瑗)의 첩을 가르처 말한 것이엿다。

리선전관은 그 창두의 말을 다 드른뒤에 매우 기뻐하는긔색으로서

『아아。그 세분 마마님의 끽게는 어떠신고?。』

『예。소인대 마마님은 대감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중 자제까지 나시깨닭에 더욱 위함을 바드서서 마마님 청이면 안되는일이 별로 업삽고。또 윤승상대 마마님은 소인대 마마님의 사촌동생이시고、신부원수대 마마님은 소인대 마마님의 이종동생이시는 까닭에 그세분마마님께서 각각 세분대감께 청을하시면 못될일이 업슬것이오 또 윤승상대 마마님 신부원수대 마마님은 소인대 마마님의 말슴이라면 아니들으시는 일이업는 까닭입니다。』

『허허。너의대 마마님은 마마즉으로는 지체가 매우조흔신 마마님이시군。동동낭처 정말어。』

하며 리선전관은 또 도임백오십냥을 끄내어 그 창두 페 내노핫다。

曆 十一月一日(日) 陰丙子九月十八日 丁亥·土·昴·除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陰二十四日)

西江治水工事失敗
明年耕作에도悲觀
蘆月面下의五個里에散在한
八千餘災民流離續出

【安岳】 문제다단한 서강치수공사가 불충분함으로 근방에 거주하는 신천군노월면 오국리(信川郡蘆月面五局里)이하 오개리에 팔백여정보의 옥토를 경작하는 삼천여호의 일만여주민의 생활전도가 무망하다고 정든고향을 떠나 류리하는형편에잇다

그원인을 들어보면 황해도령으로 서강치수공사를한후 마명리세월(馬鳴里洗越)공사와 의둔리배수로(宜屯里排水路)의 작업공사(洗越工事)가 불충분하야 해마다 저수치못하고 천연수(天然水)가 아니면 작농키어렵게되는바 금년가튼 가물에는 의연팔백여정보가 황무지가되엿고 주민은 호구책이업서 정든고향을떠나 사방으로 유리하야 해주세멘트공장등에 허터저 잇는데 그나마도 자작농 흉년지주 그리고 뒤를보아주는 소작인등이 팔천여주민이 아직살고잇는바 그들이 명년도작농을위해서 세월(洗越)을 증축키위하야 가가호호에 푼전을모아 수백원을 만들어서 의둔배수장과 마명리세월공축을 행는바 빈약한재원으로 시작행든관계인 그만큼 루수파괴(漏水破壞)되고말엇다 그나마도 지금모혀잇는 몰론써 명년작농에 대입가 행든그것이 수포로 도라갈과동시에 팔천여생령은 일대사활문제에 직면해잇는바 당국의 실지한고려를바란다한다

속히 자진 귀부하야 지난이사업에 신속한성식을섭대히 거행하얏는데 군당국에서는 각처한바잇서서 지나간성식을 리용하야 최(崔)장다구부터 감사장을 수여하얏는데 관계당국으로몰론 일반이사의칭송이 자못하다고한다

長津水電의雷禍
羅災民生途漠然
二十戶七十餘名을民家에收容
會社에서食糧은配給

【咸興】 귀보 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제일발전소락뢰수란(落雷水亂)에 가옥과 가장즙물을모다 일허버리고서 알몸으로 령하십여도의 한천(寒天)에서 떨고잇는 리재민이십호 칠십륙명은그후에 동회사에서 알선하야 부근민가에 노나수용하고서 일음백원으로 소(粟)을 사서 리재민매인에게대하야는 하로 오합(五合)소인은 삼합식 식량을배급하야 일시긔한을 면케하고잇는데 방금절긔는 더하고 잇는이때 그들의 생도는국히우려된다

面事務所職員의不正事實이綻露
面所新築費를橫領消費
甕津郡北面의不祥事

【甕津】 황해도 옹진군북면(甕津郡北面)에서는 부정사실이 탄로되엿다는데 사실을 탐사한바에 의하면 아래와갓다

현재북면사무소는 몟날건물을 수리하고 면청을집무중이나 협착한까닭에 이것을 신축할론의가 년래 현안중에잇든바 소화삼년도에 동면예산을 계상하야가지고 그중에서 부족액은 면민으로부터 파세등급에 의하야 부과증수하기로 면협의회에서 결정한후 면직원중에서 그돈을 중수취급하고잇든중 근일에이르러서 그돈을 취급하고잇든 면직원중에서 행위가 불온한점이 잇슴을 관파하게된 그면내의 면면사람이 옹진군당국에 사실을 진정하얏슴으로 당국에서는 즉시청원을 출장하야 사실을 조사하여본즉과 공금의 소비된 혐의가 농후함으로 경찰서에 의뢰하야 관계자들를 호출하야다가 사실진상을 엄중취조한바 이백원 가량의 공금을 소비한 사실이 탄로되엿슴으로 군당국에서는 엄마전 그돈을 변상케함과 동시에 책임자인 면서긔두명의 면직처분으로써 일단락을 짓게하얏다는데 장면장도 그에따라서 이책사표를 제출하얏다고한다

面內有志總動員
水害義捐募集

【竹川】 흉혹한 수마의습격을당한 남조선피해동포의정상을 생각하고 동정의갈드를 금치못하야 당지방 장곡보교(壯谷普校)의어린생도들이 푼푼히모아 금십원여를 피해동포에게전달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또 한금번면내유지의동포에의발로로 금삼십원여를모아 장곡면사무소를 경유전달하엿다는바 의연제씨의방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金一圓五十錢吳述根 金一圓式 朴長浩、李秉植、崔光奎、崔益壽、崔容植、崔日壽、閔泳九、崔秉喆 金五十錢式 竹川和昌澤鐵店、李永宰、任敦國、李亨基、崔龍萬、盧敬鉞、朴成浩、崔洙澤、鄭守乘、林成祚、李權陶、李鍾宰、崔必壽、尹壽模、李信培、李寬鎬、孫鳳模、崔元植、諸榮夏、李奉善、李貞純、鄭龍燮、姜信模、安斗燮、金遇範、崔光淳、金泓鉉、崔진善、崔光三、崔承赫、崔敦善、崔承輝、崔龍植、崔敦華、李春永、崔亨元、鄭孝俊、李興世、朴應範、安成浩、崔承完 金三十錢式裵承喆 金四十錢張道準 金二十五錢崔承喆 金二十錢式 崔承甲 金赫奎、姜然熙 合計金三十一圓五十五錢也

回甲宴을廢止
簡易校에寄附
京城李潤秀氏特志

【長湍】 경기도장단군진남면덕산리(長湍郡津南面德山里)에잇는죽엽간이학교(竹葉簡易校)는 지난구년사월에 개교하얏는데 교실이 협착할뿐아니라 제반설비가 불소하야 이지방에인연이깁흔 경성수창정삼십오번지 리윤수(李潤秀)씨는 늣긴바 잇서서 금번 회갑연을 폐지하고 일천원이라는 대금을 동간이학교신

全朝鮮弓術戰
大盛況裡終幕

【全州】 본보전주지국 후원과편심구락부(片心俱樂部)주최의 제일회 전조선 남녀궁술대회는예정한 지난 이십칠일부터 편심정사정(片心亭射亭)에서 경긔중첨 전남 강도 무사(武士)백구십사명의 참석으로 대회의막은열리엿다

본래예정은 계속삼일간이엿섯스나 예상 이상의 성적으로하로를 더연장하야 지난삼십일로최종막을 고하엿슨데 회살이관역을 마질때 마다 전주권번홍군일당이 가다듬은 목소리로"기화자"를 불러 량토미의정서(情緖)를 고조케하엿스며 수천관중의 박수와 환호리에 지난삼십일에 좌그각입상자의 수상식이잇슨후 무사히폐회하엿다고한다

◇男子部
一等 咸安 趙文煥氏(十一中)
二等 金泉 申海玉氏(十中)
二等 求禮 金和玉氏(九中)
三等 古阜 殷成淑氏
三等 錦山 朴炳一氏
三等 麗水 申鶴相氏
四等 谷城 朴判玉氏 求禮方彥氏 麗水李芳彥氏 求禮高永祿氏
五等 古阜殷鈴鎬氏 潭川李今錄氏 沃溝李明求氏 咸安黃秀氏 群山崔錫鎬氏 (六等以下略)
◇女子部
一等 契谷 金英順氏
二等 咸安 韓石鋼氏
三等 井邑 金玉連氏

全州邑에火災
損害二千五百圓

【全州】 지난이십칠일오전두시경 전주공회당남편에잇는 전주구락부 동구장(撞球場)에서 발화되여 동건물급 동구대(撞球臺)두개와 여긔에딸인 부속품이전부 소실되엿다는데 손해는 약이천오백원에달하리라하며 발화원인은 목하경찰에서 엄중히내사중이라고한다

梁山署員來金活動
某社員一名檢擧
某種事件의關係인듯

【金海】 지난이십오일에 방공연습 전긔를두고 경남도경찰부에서는 김해청년 이십여명을 검속하기 시작되자 련일활동으로 검속된 그들의 가택을 수회에걸하야 엄밀히 수색하야다 이수의 서적을 압수한 검거선풍은 더욱확대하여진다는것은 異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구일에는 돌연히 양산(梁山)경찰서고등계 형사이명이 김해에 출동하야 김해경찰서 형사이명의 후원으로 김해모회사에 근무하는 오대환(吳大煥)(假名)의 가택을 수색하야 김해경찰서에 위선 류치하엿는바 사건의내용은 비밀에 부침으로자세히알수업스나 혹은 저번검속 사건과 관계가 아닌가한다

七萬餘圓工費로
元町公普新築
二十九日落成式

【開城】 개성부내에 잇는 원정공립보통학교(元町公立普通學校)는 금번본 개성부예산편성에 틈과되여 공사에착수하엿다함은 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구일오후두시경에 동교교사가 완전히준공되여 성대한 락성식이 거행되엿는데 소요공비는 칠만륙천원이라한다

洛東鐵道工事에
人夫不足悲鳴

【三浪津】 삼랑진과 ○○사이의 철도공사는 중곡조(中谷組)에 관할되여 공사는 래년 시한원에 락찰되여 공사는 사월에 맛치기로 되여잇다 그런데 유월경 철도공사와 상황진하 전공사가 잇는까닭으로 여간한 인부부족이 아니다 중곡조에서는 사방팔방으로 인부모집에주력하고잇다 압흐로 오백명가량 채용할모양이며 임금은 하루일원신전이상으로 폭등할긔세에 달하고잇다한다

土木界活況으로
勞働者가太不足
結氷期압두고滋甚

【咸興】 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공사라는 큰시장과 거이각지에 흐터저잇는 하천개수공사 철교공사등 미증유의 토목계 활황(活況)을 떠고잇는 함남도에서는 금번에 들어와서는 점점로동자가 부족되는 괴현상을 뵈이고잇는바 요지음 결빙기(結氷期)전을당하야 가일층 더욱 심하야 각공사에 적지안흔지장을 주고잇다

구월이십일현재 함남도지방과의 집계한 통계를보면 현재 도내에 잇는 공사는 ○십개소로서 매일소요(所要)인원은 실로 오만사천칠백 십이명의 다수에 달하는데 현재취역(就役)하고잇는 사람이 사만오천팔백오십명으로서 칠천애칠십이명의 다수가 부족되고잇다 공사장이 제일만흔곳은 함주군(咸州)의 삼십구개소 다음은 장진(長津)의삼십칠개소 갑산(甲山)의 이십사개소 안변(安邊)군의 십사개소의 순서이며 제일만히 부족되는곳은 역시함주군(咸州郡)의 사천이백팔십삼명 영흥(永興)의 구백이명 고원(高原)의 륙백팔십삼명 단천(端川)의 륙백오명의 순서다

森嚴한警戒線突破
慶北에牛疫猖獗
道內各郡에서羅疫牛近萬頭
其中善山、清道等尤甚

【大邱】 북조선에 습래한 악성우역(牛疫)은 경계선을물고 경북도내에 칩입하야 방금각군에 창궐중에잇스므로 일반농가에 거듭불안을주고잇다 이십구일현재로 경북도내에잇서 발생건수는 실로 구천사백이십두에 달하며 현재 류행성감모에 걸리조만 이천륙백여두에달하고잇다는데 그중에 가장우심한곳은 선산군(善山郡)일천사백두 청도군(淸道)일천팔십두 안동군(安東)일천두 군위군(軍威)구백두 김천군(金泉)륙백오십두 상주군(尙州)오백오십두라고 한다 도의생과에서는 각지경찰서에 통첩하야 극력방역에 로력중에잇다한다

麥種子를配給

【金海】 경남김해군 농회에서는 군내수해참상지 리재민에게 보리종자 삼백이십섬을 삼십일 전부배부하엿다는바 그배부에응면은 다음과갓다한다

金海邑 生林面 上東面 二北面 進永面 進禮面 長有面

安岳支局後援의
延專巡廻音樂
二日於安新普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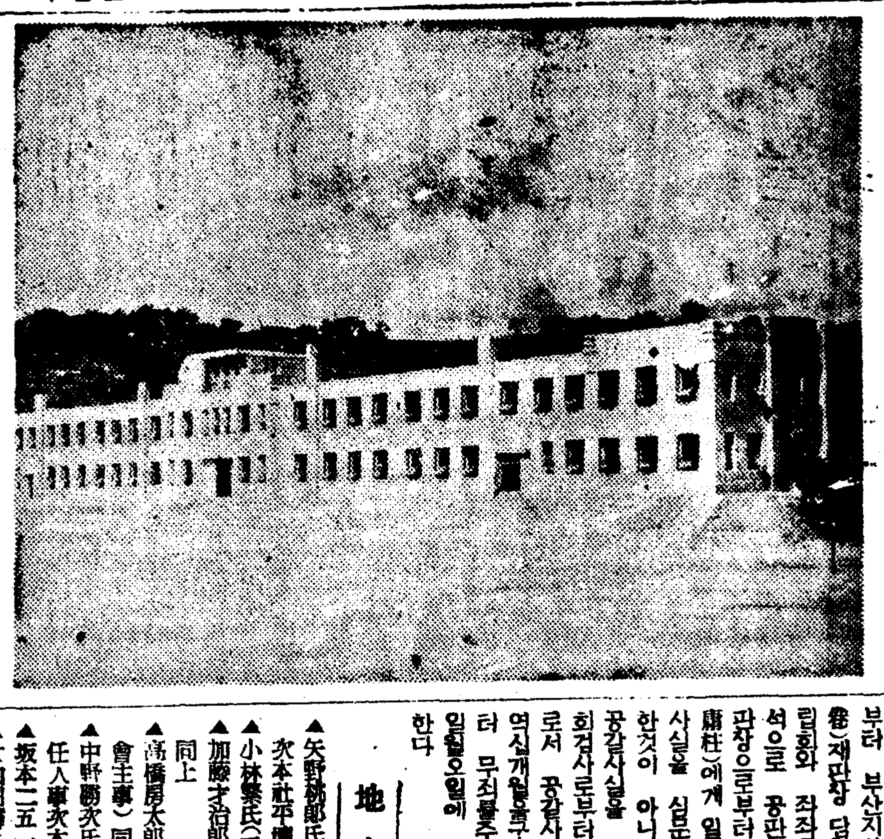
【安岳】 가을철도 저물어가는이때 안악인사들에게 음악으로하로밤의 위안을 주고자 경성연희전문학교순회음악부(京城延專巡廻音樂部)를 오는십일월이일밤 안신보통학교대강당(安新普校講堂)에서 본보안악지국후원미테 개최케되엿다 일행은 이십륙명으로서 교수최순주(崔淳周)씨 인솔하에 박경호(朴慶浩)교수의 지휘를바더성대히 전개될 이음악의밤은 벌서부터 대인끼로서 입장권을예매중이라 한다

龍岷洞民赤誠
義捐모아寄託

【白川】 연백군유곡면 용현리에서는지난번남조선수해리재동포들을 구제하기위하야 동민이십오인이 성의잇게모은돈 륙원사십전을 재차수해지에 보내달라고 동민의 대표인 장병천(張秉天)씨가 지난사삼일에 본보배천지국에 래방하야 귀탁하엿슴으로 즉시본사로 보내엿다

十四萬圓자리金鑛
三千圓으로鑑定
問題의牛城金鑛賣買

【公州】 충남 공주군 우성면 단지리(公州郡牛城面丹芝里)금은광산등구(제팔백팔십사호)소유자 오길상(吳吉相)씨 금광은 십사만원에 매매계약이되엿후 사그매매문제로 매수자등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등으로 수년을두고 싸워오든중 지난 구월십삼일경에 총독부 상전(上田)기사가 감정한 가격은 삼천원으로 평가되엿다는바 십사만원이 삼천원감정가격으로 폭락되엿다 하든 이소송문제판결은 실로 흥미잇는것으로 오는 삼십일오일에 공판이 개정되여 원피고간의 구두변론이 전개되리라한다



◇…竣工된開城元町公普校舍

大田鳥致院間의
複線計畫具體化
近近調査를開始乎
古賀技師一行卅名現場에來着

【大田】 경부선(京釜線)복선계획의 하나로 위선 대전조치원(大田—鳥致院)간부터 복선을 시작하되 현재부강(芙江)을 통과하든것을 조치원서 대평리(大坪里)와 유성온천(儒城溫泉)으로 대덕군(大德郡)과 타협한결과 통과할것을 결안계획중이라함은 임의보도한바이어니와 금번복선로조사차로 조사원고하(古賀)기사 일행삼십명은 삼십일 오전에 대전에 도착하야 토목과와 대일래로 조사에착수하리라고한다

劇場設置競爭

【海州】 서조선의 웅도로서 근래약진을 거듭하고잇는 해주에는 근대 도시에 어울리지안는 빈약한극장(劇場)이하나잇슬뿐으로 연극(演劇)영화(映畵)팬들은 이에대한 불만이 적지안타고한다

그리하야 이시그를포착한유지 흥이잇든가중에는 세갈래의 분파를지여 근대건축의 새극장신설을 계획하고 방금 대활동중인데 그중 김모(金某)는 소관해주서(海州署)에 허가를신청중이며 최모(崔某)오모(吳某)를 중심으로한 일파도활동중으로 세파의 원자본금주식회사를 창립코저활동중이며 쟁탈전이 전개되고잇다한다

"런넬"視察하다가
不意通水로溺死
赴戰江水電의慘禍

【咸興】 부전강수전(赴戰江水電)에 또 수화(水禍)! 지난 이십칠일오후한시 서송조(西松組)의 배하다전신차(多田信次)의조선인인부두명한세명이 장진군 서어수리(西於水里)에잇는 동수전『런넬』보수공사의 상황을 시찰하려고 런넬안으로 들어갓다가 그만뜻밧게 물이통하게되야 그중한명은구출(救出)하엿스나 두명은익사(溺死)하얏다는데 원인은 그들이시찰하려고 런넬안으로들어간것을 아지못하고서 우으로부터 회사에서 통수(通水)한것이라고한다

忠南의名勝巨府巡禮 (一)
邪教魔都 鷄龍山흘겨보며
도라드니恩津彌勒
그規模의宏壯精巧에驚歎不已

大田特派員 申 哲 記

만곡(萬穀)은 황금세을 일우고 산북에 짓타가는 단풍은 주색으로 단장하는 가을의 충남(忠南)! 아ー니야 진의충남! 명승의 충남을 시찰시켜주겟다는 도당국의 호의로 도청일행과 신문기자단은 지난이십칠일에 중부하가로 결정하얏다 일행은 오전아홉시반에 도청귀자신에 모혀서 떠나기로되여 도청일행오십명과 일행기자 동차에 분승하고 산본(山本)지방과장이하놀로 도청일행상을 출발하얏다 예정지는 곡창의 론산(論山)을지나 조선의명승 부여(扶餘)를 구경하고 일행 향구로 (公州)시찰예정지인 장항(長項)의 발전상을 시찰한뒤에 조선제일을 자랑하는 서천(舒川)청년훈련소를 보고 보령(保寧) 홍성(洪城)예산(禮山)을 거처 온양온천(溫陽溫泉)에서 일박한그의일 천안(天安)조치원(鳥致院)을 도라 공주(公州)로해서 돌아올예정이다

×

예정일정과 시간을보고잇든동안에 벌서류천(柳川)평야를지난하고잇다 ……람 것은사람 지게지고가는사람 우차를 끄을고가는사람들이매우 분망한긔색!이것은 완연히가을 이짓다가개될을 재인식하게되얏다 일년중피와 땀으로된 이곡식이 과연 그들의식량이될것인가? 하는 생각을할때 나의가슴은 웬일인지 울렁거리기시작한다

그들이 지은 곡식은 그들이 먹어야할것이 정당한 원리일것이지만 그럿지못하고 오늘날은 지주에게밧처야하고 그남어지는 농비에 드린부채와 비료대(肥料代)를 주어야한다 그러면그들의 소득은 무엇이가하는 것을 생각한까닭이다

×

자동차는 오십마력의「스피드」를노아 가수원(佳水院)두계(豆溪)를 지나니 목전에보이는것이 사교의마도(邪教의魔都)로 수천수만의우매한 민중을여지업시롱락하는 계룡산(鷄龍山)이다 대체이마를은 무슨천그를 다고낫기에 세인의화제꺼리가 되야 잇스며 가연도부리를 더욱괴롭게구으는가? 한사(閑士)들의구조리는자란으로된 정감록(鄭鑑錄)은 허황한미래를 엉터리업시 예언하야 신도(新都)는 정가의 도읍터이라는가 계룡석백(鷄龍石白)이면 세사를가지(世事를可知)라는지는 어데서나온 날근수작일가 생각할수록 머리가압호다 명랑한가을날 과학의혜택으로 오십마일을 질주하고잇는나에게 왜ー이다지 불쾌한것을 보혀줄가 나는코우숨치며 계룡산을물그림이 치여다보니 원망스럽기한이업다 근거업는 미래를맹신하고 조(粟)밥과 보리죽도 올케먹지못하면서 무슨교니무슨교니하면서 때오기를 기다리는 수천무리들은 종교빠로귀ー」들의롱락물에 지나지안는것이다

×

마도의명산(魔都의名山)계룡산도 제처버리고 우리가 탄차는 여전히 다름질치고잇다 련산(連山)과 론산(論山)을 지나 남쪽으로 약신여정을어가니 우리들이 한상 보고저하든 은진미륵(恩津彌勒)이잇다 길을 멈추고 우리일행은 예정지는 아니엿지만 이미륵을 구경하기로 하얏다。이거야말로 놀라지안흘수업는 거불(巨佛)이다 놉히 오십오척이고 주위가 삼십척인데 머리에는、갓을쓰고 서잇다 머리우에 금으로 장식한것이 벼혀잇섯다는데 어느자의 소위인지 금을 훌처가버리고 다만 금배혓든 흔적만이 잇슬뿐이다

×

이 대불의 유래를 대략적어보건대 고려광종(高麗光宗)왕십구년에 련산(連山)반야산(盤若山)에서 이와가티 큰 돌을 발견하야가지고 수백명의 공인(工人)을들여 삼십칠년동안에 조공한것이라고한다。이것을 세우는데에도 명명에비조든가 만치만 이것으로 생략한다 (계속)

慶北米統組設立
廿四日附一齊認可
組合員一萬三千餘名

【大邱】 경북도내의 미곡통제조합(米穀統制組合)은 이십사일부로 일제히 인가되엿는데 조합원수는 전부 일만삼천륙십구명이고 미곡재배면적(米穀栽培面積)은 구만오천사백 십사정보라고한다

元密陽郡守의
恐喝事件公判

【釜山】 원 경남밀양군수 김한(金翰桓)에 관한공갈피고사건은 지난이십구일 오전십시부터 부산지방법원에서 황정(黃井)재판장 담임 송본(松本)검사 립회와 좌좌목(佐佐木)변호사립석으로 공판이개정되엿는데 재판장으로부터 피해자 김용주(金庸柱)에게 일천삼백원을 공갈한 사실을 심문하매 피고는 공갈한것이 아니고 꾸여쓴것이라고 공갈사실을 절대부인하얏는데 립회검사로부터 지금까지의 취조로서 공갈사실이 분명하다고 징역십개월을 구형하고 변호사로부터 무죄를주장하얏는데 오는십일월오일에 판결언도를 한다고한다

地方人事

▲矢野桃郞氏(平壤府尹)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小林繁氏(平壤府內務課長)同上 ▲加藤才治郞氏(平壤府庶務課長)同上 ▲高橋房太郞氏(平南道內務部社會主事)同上 ▲中野勝次氏(平北警察部長)新任人事次本社新義州支局來訪 ▲坂本二五一氏(新義州署長)同上 ▲大和田轉之助氏(平北高等課長)同上 ▲小島一郞氏(平北保安課長)同上 ▲玉井安壽氏(平北官房主事)同上 ▲戶澤邦夫氏(平北理財課長)同上 ▲上甲幸氏(大朝記者)永年間平壤通信部에 在職하든바 鳥取支局에榮轉케되엿스므로 在壤記者團에서는 三十一日 鴻陟樓에서 送別宴을 開催 ▲朴勝倏氏(專賣支局寧越出張所輔導主事)就任職人事次本報寧越支局來訪 ▲黃孝順氏(前瑞興署司法主任)金川署榮轉人事次本報瑞興支局來訪 ▲李滋鎬氏(前瑞興郡森林主事)遂安郡產業技手榮轉人事次同上 ▲物江弘一氏(江陵道立醫院內科長)赴任人事次本社江陵支局來訪 ▲大西由一氏(前江陵警察署長)鐵原警察署長轉勤人事次同上 ▲增田平八氏(朝鮮運送株式會社重役)江陵出張所開設人事次同上 ▲李相基氏(救世病院副院長)東大醫學部眼科教室에서 約三個月間研究次 出發人事次本社元山支局來訪

◇訂正 本報五五四八號朝刊社會面第七段에 扶餘農會指導員의脫線的乾燥場勸의題下記事中末端에『전국지도원의 처사에불개한동민들은 경찰당국에 호소하는등물평이 마마하다』라함은 警察當局이 안이라『郡當局에 質問하는등』의 相違이기 玆에訂正함

平壤
全朝鮮男女卓球大會
▲日時 十一月三日午前九時
▲場所 光成高普運動室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愛慾의彼岸
【139】
李光洙 作
金康善 畵

강은죽은뒤를 생각해보앗다。죽은뒤에도 의식이 남는것인가 아닌가。이몸은 흙과 흙이 되여버리고 말려니와 이 맘은? 마치 태엽이 다 풀리면 시계가 서버리고 말드시 이몸에 숨이 끈허지면 이 생명도 고만 숨어지고 마는것인가 과연 령혼이라는것이 잇서서 또 공자식이라는것이 잇서서 혹은 지옥으로 혹은 딴세계로、혹은 딴몸으로 생존을 계속하는것인가。마치 자고깨면새날이오 자고깨면 새날인 모양으로 수업는생을 나고죽고하는가。

강은 이문제에 대해서 분명한자신을 가질수가 업섯다。다만 생명에는 멸하지 아니하는 무엇이 잇는것신하엿다。

『내가 잘한것이나 잘못한것이나간에 내가 한일은 멸치아니하리라。그리고 그일의 열매를 거두는 존재만은 끈힘이 업스리라』

강은 이러케 미더다。

『다음 생이 잇다 하면 새생에 들어가는 마음을 깨끗이하자。사당에 들어가는 재관이목욕재게 하고 마음을 모으는 모양으로 할수잇는 한에서는 마음을 깨끗이하자。설사 다음 생이 업고 내숨이 끈허지는 순간이 곳내존재의 마즈막이라하더라도 그 마즈막만이라도 아모의아페 내어노라도 부끄러움이 업도록하자。부끄러운 일생의 마즈막 순간 만이라도、단 한 순간만이라도 깨끗한거룩한 마음을 가저보자。금방벗어버리고갈 몸의 동물적인 욕망을 모도 해탈해보자』

강은 이러케 생각할 때에마음의 편안함을 어덧다。세상에서 얼마큼 멀어짐을 깨달앗다 마치 놉흔 산으로 올라가는사람이 한걸음 한걸음 우으로우으로 올라갈사록 저 사람사는세상이 적어지고 멀어지고 시들해지는 모양과 가타섯다。

강은 전혀 못 보던 인생을 어덧다。

강은 한 걸음 한 걸음더욱 제 마음을 노픈 지경으로 끌어올리라고 성인들을 생각하엿다。예수、석가、공자。

강의 눈 압헤는 겟세마네에서 마즈막긔도를 올리시는 예수와、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양이 나 떠다。

강은 주긔도문을 외왓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우어진것과 가티 땅에서도 일우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야줌과 가티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잇사옵나이다、아멘』

이러케 오인 강은

『아아 어떠케나 직절간명하신 말슴인고。이몸의 모든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동포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옵소서、오늘 먹을 양식밧게는 이 몸을 위해서 구하는것이 업나이다。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말게하시옵소서。오직 당신의 뜻만이 일우워 지옵소서——아아 어떠케나 분명한인생관인고?』

강은 이러케 주긔도문을 해석하는 모양으로 번역하는 모양으로 딴말로 고처보앗다。몃백번인지 모르게 오인 주긔도문이언마는 전에는 못 보던 새뜻을 가지고 강의 마음에 육박햇다。

『헤매지안코 똑 바로 살아갈수 잇는 평탄하고도 알기쉬운길이 잇는것을』

하고 강은 높하 멀리 인생의 바른 길을 찾노라고 사십평생을 헤매던것을 생각하엿다。

『백합이 입는 모양으로 참새가 먹는 모양으로 풀과 나무가자라다가 저 할일을 다하고 마르는 모양으로——이것이 인생의 큰 길이 아니냐?』

강은 눈을 번쩍 떳다。

『구름이 가는 모양으로 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그것이 사람의 사는 길이 아니냐』

강은 아까 금강경을 외울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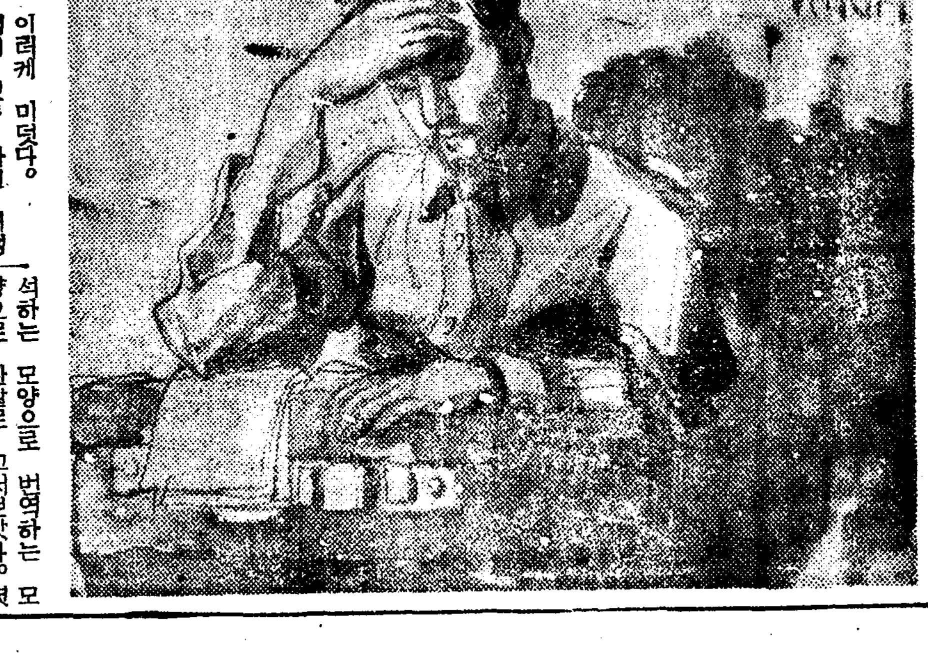
『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

라는 구절이 문득 생각이 낫다。

『사람이 이러타 저러타 하고 모든 이론을 세우는것이 다 허망한것이로고나。이러타 저러타 하는것이 아모것도 아님을 볼때에 우리는 본래의 마음을 보는구나』

강은 이러케 해석하고 만족하엿다。

강의 눈 어엽 어엽에는 우슴이 떠도랏다。



經濟解說

産調答申檢討

農民의勞働者化

洪鍾仁

土地를 中心으로한 問題는 여러가지方面으로 重要性을가지게된다. 그것은 벌서前부터 論議되어오든 것이다. 그中에서도 注目을 끌든것은 北朝鮮의鑛工業의開發과 隨伴、城津、淸津 三港의 築港으로 一時에 殺到한 土地熱이 들끌어 一朝에 數十萬圓、數百萬圓의 巨富가 된것도 만헛다. 그反面에 大資本의 招聘이 擴張延長하에 地方的으로이르키는影響은 도한적지 안타. 그러고 이와前後하야 一般事業景氣가 勃興하면서 鐵道其他交通機關發展等의 關係도잇고 農村에서 大量的으로 集中되는人口增加의 關係도잇서 都市中心으로 이러난土地景氣의旋風도 産金景氣와並行하야 實로 朝鮮經濟界로서는 破天荒의事實이엇든것이다.

×

이러한 土地景氣가 이르킨 影響은 果然 어떠하엿든가? 土地所有者들은 土地의 突然한 增價로 富가 增大한것만은 事實이나 그實은 果然 어느程度로 生産의 利를 가지게 되엿든가 土地景氣는 大部分이 投機的이엇고 實需가 크지안헛든데에 一方에는 金融業者가 土地擔保의貸付에 所謂土地景氣에 編入하여 實大(?)하엿다는事實도 拍車를加하여 一部 土地、住宅關係의 利用外에는 인프레的 性質을多分히가지어 前途는 危險을숨기지안흘수업는 形便이엇다 그結果土地는 少數大地主에게로 集中되어 從來의 日을 두고保有할수잇는 資本家가 아니고는 土地擴張의 長期的擴張을 볼수업시될것으로 豫測되고잇다. 그럼으로 土地景氣의結果는 一般小地主、小資本家의 近代的金融網에 捲入을 不得已하게한다. 이리케 되다면 一般的으로 土地는 都市와農村이 한가지로 勞働 計에 제될것이다 地價가 昻騰한다고해도 實際土地의使用 收入이增大하지안는以上 土地資本으로서는 그利潤이 相對的으로 減退를보는結果에 밋게될 것이다 이點도 充分考慮하여 볼問題이다.

×

鑛工業이 大規模로 開發되면서 勞働者의 需要가 는것이며 다한 增加를볼것이다. 本來 植民地라고하는 資源을 目標로 한다면 同時에 勞働力이 豐富하다는것이 따라오는 問題이다. 朝鮮도 從來에 잇서 各産業을 爲하여 資源의 勞働力이 밥듯이 要求되어잇다. 朝鮮米의 日本內地米에對한 低廉도 勞働力의 低廉한것이고、그때문에 日本內地에서 不足한米를 農村에 依存하엿다고볼것이다。그와마찬가지로、朝鮮에鑛工業이 發展된것은、資源의豐富한理由도잇지만、勞働力이 豐富低廉하다는것이恒常主唱되고잇는바이다。그래서압흐로 勞働者가 더需要됨에따라 그勞働者는當然히 農村에서 供給될것인데 現在에도 疲弊한 農村에서 만흔 農民이 勞働者로 轉換함을 볼수잇거니와、農村의 窮乏은 압흐로 一層이를甚하게 할것이다、土地를 勞働의相對로하든 農民이 自己의 勞働力을 商品化함이 有利하냐 農民으로 남어잇는것이 有利하냐는 여기에 말할수업는것、問題는 그보다도 農村을 떠나지 아니할수업시될 農村의事情이 問題인同時에 그들을 마드는 都市産業이 그들은 果然 그들의生活을保障하여安定 位置를줄수가잇는가가問題이다。

×

國策遂行의 命題下의 産業開發이以上 그 産業政策에는 社會政策이 뒤를 딸리加味되지안허서는 안될것이다。"名實"이잇는 産業開發의 最大의役割에게도 그名實의徹底히 잇서야 할것이니 勞働者의生活의 維持를爲한工場法制定等의 自發的施設도 勿論잇서야할것인同時에 當局으로서는 이에 對한法制的準備가 도한잇서야 할것이나 從來總督府內에서 이미立法의必要가 主唱되여잇든 工場法이 今般調査會에서 그 氣運조차「解消」의境遇에 빠젓다하니 어떠케되염일까、勞働者의 集團의形成조차 거이 不可能한情勢下에 勞賃協調를 한다면 누구標準이될것일까? (=계속=)

産調答申重要項目 緊急施設件決定

卅一日臨時局長會議서

日前産業經濟調査會에서 審議決定한 各種重要項目의 實施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臨時局長會議를開하고 左와如히 緊急히施設을할 것을 決定하엿다

一、民間資本의 造林計畫助成
一、無水알콜生産
一、化學的家畜飼料의 生産
一、甜菜栽培
一、緬羊牛馬의 飼育奬勵
一、鐵道及道路의 朝滿連絡施設
一、水力發電計畫
一、通過貿易의助成
一、造船事業의助成
一、沿岸旅客輸送對策
一、海洋氣象觀測設備의擴充
一、淡水漁業의施設
一、冷凍魚의奬勵
一、日本內地朝鮮滿洲産業連絡審議會의設置
一、中小工業의生産品輸出助成
一、輸出助成
一、金 網綱의普及對策

棉花共濟制 明年度實施?

棉作補償의 棉花共濟制는、今年度豫算에서 財務局査定을 通過하야 目下 拓務省과 折衝中인데 棉花의 國策的重要性累加로 大體 拓務、大藏側도 同問題에 對한 認識을 고첫스므로 마즈내 明年度부터 實施는 確定的이되엇다 그大體는 旣報와가티 系統農會를 活用하야 共濟相互施設로하고 棉花十錢을基準으로하야 上下三割을 基準價格으로하야 그上價의境遇에는 이를 積立하고 下價의境遇에는 補償을 行할 計畫인데 이것이 實現되면 不安定視되는 棉花增産에는 今後一般의 熱이 加할터이라고 크게期待되고잇다

"西鮮合同電氣" 開城、江界電氣合同 來月一日부터實施

압서 西鮮合同電氣는 開城電氣의 合倂及 江界電氣의 事業買收認可를 申請中이던바 三十一 …… 는近近 完成되게되어잇다 그리고 西鮮合同電氣에는 合同後 被合同會社의 一般電燈、電力料金의 相當한 大幅引下를할 意向이다

鹽專賣制度改善 ◇…當局의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專賣局에서는 馬場藏相의 財政政策에基하야、專賣制度全般에亘하야 再檢討를 行하고잇는데 煙草價引上알글及 사이다專賣創設等과아울러 國民經濟生活과 國防經濟及 國防上緊接한關係가잇는 食料鹽及 工業鹽의 專賣制度改善에關해서는 最近如左한 方針을 決定하야 明年度부터 着着이實行을圖하기로되엇다

一、工業鹽의供給改善 二十八日부터 三十日까지 中央會議所에서 開催된 內外地鹽務關係協議會는 工業鹽의供給政策에關하야 五個年計畫을 決定햇는데 이에依하면 現在 日本工業鹽의 大部分을 供給하고잇는 阿弗利加、西班牙、米國等에 代하야 現在 四割七分을 供給하고잇는데 不過한 滿洲國 北中 關東州 臺灣等으로부터 將來 七割、八割까지 供給을바더 이로써 日滿中經濟블럭建設工作의 一端이 되게하고 또 이것의 過渡的便法으로 貿易調整의 見地에서 可及的 日本商品의 輸出地인 智利其他 南米鹽의 輸入을 圖하기로하야 國際貸借改善에 資할것

一、食料鹽의 價格引下 國民生活 特히 農漁民의 消費經濟上에關係가 기픈 食料鹽은 日本內地의 供給으로서 充分할터이나 아직 增加의情勢를 緩和하는것이 極히 必要하므로 明年以降 八個年計畫으로써 現在의 政府賣渡價格을 八年間에 百키로當 一圓을引下하야 (現在一斗 政府賣渡五圓四十錢)機械鹽의 普及으로 生産費의 低下를 圖할것 明年度賣渡價格은 十二月初旬 決定될 豫定인데 相當한程度의引下를 보게될것이다

朝鮮水産役員 卅日創總서決定

旣報=中央物産會社의 傍系 朝鮮水産株式會社 創立總會는 三十日午後三時 中央物産會社에서 開催한結果 定款은 原案을 承認할 役員은 如左히 選任하엿다 (括弧內는五百株以上引受株數)

▲社長 田川常治郞(三、一〇〇) ▲專務取締役 金正熙(一〇〇〇) ▲常務取締役 富野七三雄 安昌鎬 ▲取締役 金仁鎬(五〇〇) 金顯悅(六〇〇) 林聖初(五〇〇) 姜大潤 ▲監査役 田學淳 姜大元(五〇〇) 朴甲鳳 ▲相談役 芮宗錫 酒井政之助 和氣孫吉 金永根 金千壽

東拓新米資金 一錢八厘로貸付

東拓에서는 新米資金으로서京城支店元山支店管內에서 貸出을 開始하얏는데 米穀應急資金의受入까지 暫定的으로 自己資金一錢八厘(前年은自己資金二錢)으로서 貸出하고잇는바 貸出高는아즉 多額은아니라한다

東拓京城支店의 收穫三萬八千石

東拓京城支店管內의 今年度産米收穫은 水害로 非常한 減收이오 目下 豫想으로는 三萬八千石으로 前年의 六分作이 相當한 減收라한다

米日爲替保合

【經電三十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買二十八弗六十仙으로 賣二十八弗五十八仙으로各 保合이엇다

會社總會一束

◇北鮮製紙=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時五分부터 第三回定時總會를開催 藤原社長議長司會下

一、昭和十一年上期營業報告書財産目錄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承認及 利益金處分案決議를求할件

을 附議하야 異議업시 可決、同二十分散會、繼續하야株主懇談會를開한바 利益金處分案은如左하다

(單位金)

當期利益金	二〇三、三四二
前期繰越損失金	二〇〇
利益金	二〇三、一四二

(그대로次期에繰越)

▲米穀倉庫=朝鮮米穀倉庫會社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京電會議室에서 第六期定時總會를開催 利益金處分案을決定 取締役 監査役全員任期에對하야 選擧한結果

取締役에松井房治郎 立川六郎 朴榮喆 林茂樹 橋爪守雄(以上重任)
監査役에 荒井初太郎 麥菊五郞(以上重任)佐方文次郞(新任)
取締役一名增員에는 支配人倉原新氏를選任 會社를代表할 取締役에는 松井房治郞氏를 選任하얏는바 利益金處分은如左하다

(單位圓)

當期總益金	一、九六四、七一一
當期總損金	一、七五二、九一五
結局當期純利益金	二一一、八四六
前期繰越金	一一、一三一
計	二二二、九七七
右處分을如左히함	
法定積立金	一五、〇〇〇
別途積立金	三〇、〇〇〇
社員退職手當積立金	一〇、〇〇〇
役員賞與金	一六、〇〇〇
普通配當金(年五分)	一〇〇、〇〇〇
特別配當金(年二分)	四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一一、九七七

▲營業組合=營業組合會社에서는 今月卅日 定時總會를 大阪本社에서開催 二分增配의 一割配當을可決 取締役 監査役 모다 重任決定이엇다。

米第二回豫想 五十萬石減? 十月末現在로調査中

朝鮮米第二回收穫豫想高는 今三十一日現在로 各郡面에서 一齊히 豫想의 精密調査를 施行하야 來十日까지에 各道에서 集計하야 十日 總督府에 報告케서 十二、三日頃에 發表될터인데 朝鮮內第二回豫想은 相當한大減收가 豫想되고잇다 即 秋分前의 第一回豫想後 稻熱의 被害는 各道에서 表面化하야 그被害面積은 二十五萬町步에 達하고 이미 豫想되고잇든것의 減收는 相當히 커서 南朝鮮一帶와 如한것은다시 一割程度의 減收는 不免할것이라고하야 第一回에比하야 적어도 五十萬石程度의 減收는不可避가 아닌가한다 이第二回豫想如何에 依하야 國內의 自給法發動이 決定될터이므로 이結果는 注目되는 朝鮮內의 短期貯藏其他의 對策도 이에따라決定될터이다

下旬對外貿易

出超二千七百六十四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十月下旬對外貿易槪算調査는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二一〇、五九二
輸入	[illegible]
合計	[illegible]
出超	二七、六四二
一月以降入超累計	一五〇、〇五五

麥實收高도減少 比前年百九十萬石減

昭和十一年麥實收高는 冬期가嚴寒乾燥로 始終하얏슴으로 越冬이 甚히 不良하얏고 生育初期로부터 登熟에 至하는동안 恒常乾燥의 害를 바덧슴으로 作況이 不良케되어 作付反別增加에 不拘코 前年實收에 比하야 百九十萬六千三百十四石(一割五分五厘)의 減收를 示하얏다。

即作付反別은 大麥八十六萬千三百五十二町九反步、小麥 三十三萬三千五百三十二町三反步 裸麥 二十萬五千六百三十四町七反步 라이麥 五千四百六十二町步 合計 百四十萬五千九百八十二町九反步로 前年(前年은라이麥作付反別을 含치안음)에比하야 三萬九千六百五十二町四反步(二分九厘)의 增加이다。

收穫高는 大麥 六百八十一萬三千六百九十六石 小麥 百六十萬五千二百三十五石 裸麥 百九十六萬二千七百七十八石 라이麥 二萬三千二百七十三石 合計 千四十萬四千九百八十二石으로서 前年實收(前年은 라이麥을 含치안음)에 比하야 大麥百九十三萬八千二百六十七石(二割二分一厘) 小麥三十二萬七千五百八十二石(一割四分九厘)의 減收이고 裸麥은 三十二萬六千二百六十二石(二割七厘)의 增收로되고잇다 라이麥을 加算하면 結局百九十萬六千三百十四石(一割五分五厘)의 減收이다

適要 (라이麥의 生産統計는今年부터 實施한것임으로 昭和十年以前은 이것을缺함)

區別	作付反別(町)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昭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對昭和十年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上比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區別	收穫高(石) 大麥	小麥	裸麥	라이麥	計
昭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比較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同上比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經濟寸鐵

○米二回豫想은 一回보다도五十萬石이나 減少될모양이라하고 麥實收는 百九十萬石이나大減少

○이러케 農作이 大減收이니 農村事情이 기막히는노릇

○産調에서 答申한 重要項目中 緊急한 施設을 臨時局長會議에서 決定하얏다고

○項目이 하도만어서 이러케 모다 緊急히 施設될지 자못 疑問

○一日로 國調이겟지……

○棉花는 十錢을 基準으로三割上價時는 積立 三割下價일때는 補償할 共濟制를 明年度부터 實施하리라고

○完全國家補償만은 못하지만 우선그러케라도 해야할일 但 實施에 잇서弊害업도록 힘쓸일

取引停止 (十月二十八日)

▲京城府蓮池町二丁目四十四番地 ▲京城府 …… 町三丁目 …… 番地合資會社마루 …… 代表社員金 ……

今日財界 (卅一日)

◆米 (單位圓)

	今日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二低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二低
三等米 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價三等	[illegible]	

◆市中金融 — 總金 一分貸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	比前日
朝取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物單位圓)

	今日	比前日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天然	[illegible]	不變

商況 【卅一日】

株式 東新開門 再割

前場低落 今前場은 東阪兩地의 東新이 急落하야 百卅八圓臺에 寄付하엿스나 當地는 百四十圓卅錢에 寄付하고、日産八十四圓卅錢 大新七十二圓丁 鐘新百七十八圓八十錢、朝新卅六圓六十錢에 各各寄付하엿는데 東新은 月末關係의 利喰急으로 下押하야 結局百卅九圓六十錢에 大引하에따라 朝新三十六圓六十錢 鐘新百七十九圓丁 大新七十二圓丁 日産八十四圓二十錢에 各各大引하야 不勢이고後場은例休이다

利喰急에下押

今朝에 東新은 東阪兩地가俄然 急落하야 百三十八圓九十錢에 寄付 百四十圓二十錢에 寄付 …

強弱材料吟味

東新이 百四十二圓臺를보이고 다시 百三十八圓臺(東阪)를보인 것만큼 今後如何한展開를 示할는지 매우注目되는데 來月에들어가 市勢가如何할는지觀測하는 便宜上 強弱材料를다시한번 列擧해보기로 하자強氣的材料로는

1、歐洲政局의去益尖銳化
2、英米財界의順調
3、膨大한 國防豫算編成을압두고 인플레再昻進은 이미預金增의 鈍化에對하야 貸出增加傾向 或은物價昻騰等에서 보이는것
4、이것이巨大한 增稅負擔을커버할수잇는것
5、事業會社의拂込徵收 乃至增資는아직 期待되는것이만흔것

三分半利公債軟化

【東京電話商通】國債賣物市場은 最近 軟調氣配를밟어 三分半公債는 俄然 九十七圓九十錢에 이되엇다 右는 今年度第一回赤字公債가 發行된以來의일로 各公債條件이 旣發債券公債의그것과 大差가 업섯기때문에 投資熱이업고 또 增稅發表의結果 債市價의 軟化를 誘發한것이다 그러나 國債는 他證券보담 優遇되어 綜合課稅를 免하야 日銀은 現在額面으로 公債買入에 應하고잇스므로 長期에 亘하야 發行價格割을 繼續하는일은 업슬것이라고 强氣는 觀測하고잇다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一二四〇枚)

▲大同産業 … ▲日 華紡織 … ▲라사工業新 … ▲日本데질 … ▲石井鐵工所新 … ▲全羅鑛業新 … ▲朝鮮製鍊 … ▲帝國火藥 … ▲鹽水港製糖 …

東京國債市場

金利高及月末關係로 續續不勢를밟어 貸六分半은 處分的賣物로 다시 六十錢低五分半 一圓二十錢低를 告하고 佛貨도 二十錢下押하얏다 一方 內國債도 二十六年物五錢低 五分乃至四分利도 모다 十錢 續落하얏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二五 ▲第三回四分利一〇〇、 ▲押五分利一〇〇、 ▲二回四分 … ▲佛貨 …

六感

…月末利喰急으로 東新이 急落下押、그程度는 東阪兩地가 四月棒、當地가 三月棒▲高價는 依然 警戒도 되는모양이나 追擊賣는 禁物▲玉整理爲한 小低落은 미리覺悟가 必要한것▲大底入市勢의 餘地가 만허진다는것을 勿忘

期米 前場低落 仲値裡에納會

前場低落 昨後場阪地廿九圓卅四錢止에共히 廿七圓卅九錢에 寄付하야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廿九圓卅五錢인 二丁高를하고 廿七圓卅七錢인 反落하야 二十錢의 低價를보이고 阪地廿九錢으로 反落하야 …

平穩裡에納會 新甫는薄下鞘說

二十七圓九十錢에 發會하야 一時 …

百丁戾後一落 當然한步調!

米……昨日은渡米難의 當限이 意外의爆發的納會로 當地二十六圓十三錢 最低價를 示하였으나 …

各地新甫豫想

▲大阪—無鞘乃至十丁下鞘▲東京—無鞘▲名古屋無鞘▲神戶—十丁下鞘▲仁川—十丁下鞘▲釜山—五丁下鞘▲大邱—無鞘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今前場寄附에 汐崎의 四二〇〇石 買物注入이 注目되엇다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不變

定期不振이나 實物薄로 市況은保保이엇다

三等二九、二〇 四等二九、〇〇 一等白米 三二、五〇

仁川保合

産地는 價格如何를 不問하고 目下로는 實物을 내노치안는狀態로 取引은 極히 閑散을 呈하고잇다 三等 …

釜山閑況

精米側의 原料買가 散見되는程度로 月末關係로해서 實買는圓滑치 못하엿다

大邱少弛

定期는强保하야 比較的強硬하나 絕好의 日氣가 계속되어 新米出廻에 눌려서 市況은 十錢少弛이엇다

群山反落

期米不勢와 天候快晴에 人氣軟化하야 十五錢의 訂正低가 되엇다

木浦同調

越月待人氣에 實買不振하야 市況은極히沈滯하나 産地高에 氣配漸各氣味이엇다

株式 (卅一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期取 鑑定 代引 日步 [illegible]

期米 (卅一日)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金融 (卅一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卅一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卅一日)

◆京城綿系布市價◆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京城人絹◆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日本麥粉市價◆ [illegible]

◆大連特産市價◆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神戶船沖價◆ [illegible]

米 株 東益商店 金益證券 光皿

株式 期米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玉

期米 福 吉村榮左工門商店